

2003학년도
석사연구논문

칼빈과 몰트만의 교회론 비교 연구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신학과 조직신학전공

오 춘 석

칼빈과 몰트만의 교회론 비교 연구

지도교수 곽태관

이 논문을 석사 연구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12월 일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신학과 조직신학전공

오 춘 석

오춘석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심사위원 _____

심사위원 _____

계 약 신 학 대 학 원 대 학 교

2003년 12월 일

목 차

I. 서론	1
A. 문제 제기와 연구목적	1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II. 칼빈과 몰트만 교회론 비교	6
A. 칼빈의 교회론 형성배경	6
1. 고대교부들의 전통배경	6
2. 어거스틴	8
3. 루터	9
4. 로마 카톨릭의 부패	10
B. 몰트만의 교회론 형성배경	12
1. 고백교회 운동과 세계 2차 대전	12
2. 칼바르트(Karl Barth)와 헤겔 철학	14
3. 괴팅엔의 세 교수	15
C. 평가 : 시대의 산물로서의 교회론	17
III. 교회의 본질적 측면에서	20
A. 교회 본질에 대한 칼빈의 입장	20
1.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20
2.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22

3.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23
B. 교회의 본질에 대한 몰트만의 입장	26
1. 성령의 교회	26
2.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32
C. 개혁주의 입장에서 신학적 평가	39
IV. 교회의 표지에 대하여	43
A. 교회의 표지에 대한 칼빈의 입장	43
1. 말씀의 선포	43
2. 성례전	45
B. 교회의 표지에 대한 몰트만의 입장	55
1. 교회의 일치	57
2. 보편적 교회	58
3. 가난속의 거룩함	60
4. 사도적 교회	61
C. 개혁주의 입장에서 신학적 평가	62
V.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	71
A. 교회의 사명에 대한 칼빈의 견해	71
1. 사회에 대하여	73
2. 정치에 대하여	74
B. 교회의 사명에 대한 몰트만의 견해	74
1.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75

2. 하나님 나라의 교회	78
C. 교회의 사명에 대한 개혁 신학적 평가	82
VI. 결론	87
참고문헌	98

I. 서론

A. 문제 제기과 연구목적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님께서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많다고 했다(마 7:13-14).¹⁾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생각 없이 따라서 가는 길이 바른길이 아님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모두 쉽고 편한 길을 택하는 것이 문제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거짓선지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성경말씀(막 13:22)²⁾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오늘날 신학교는 많아졌고,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하지만 진리를 떠나서 인간중심의 교회성장이라는 문제를 놓고 열심히 노력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 중에는 자유주의와 신비주의 신학이 크게 역할을 하고 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신 편지(계 3:14-22)³⁾를 우리들이 주의 깊게 읽고 선포해야 할 때이다. 교회 연합을 부르짖으며 현실과 타협하면서 진리를 버리는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경고를 더욱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1)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마 7:13-14).

2) “거짓그리스도들과 거짓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케 하려하니라.”(막 13:22).

3)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 같이 미지 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다”(계 3:15-16).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그릇되게 가르치고 있다.

신앙고백이 다르면서도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일치로 내세우고 있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잘못된 교회관에 기인할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한국교회가 급성장을 자랑하는 동안 자유주의 물결이 밀려와 우리의 갈 길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

지금은 배교와 불신앙으로 타락한 말세지말(末世支末)이다. 기독교내의 자유주의자들의 비성경적인 연합운동, 비진리와 타협하는 신복음주의, 성령은사운동(신오순절운동), 세속적교회음악, 사이비이단사조들, 인본주의사상, 육신부패성등이 우리의 고귀한 역사적 기독교신앙을 파괴하고 있다.⁴⁾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 사이비교회는 언제든지 참 교회를 해친다. 그 방법(方法)이야 여러 가지이지만 목적은 참 교회를 해쳐서 참 교회가 이루고자하는 바를 방해하고 파괴하여 교회의 머리되신 주께서 교회에 부탁하시고 주신 바 사명을 잘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해치는가를 잘 판단해야한다.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소명은 무엇인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결코 세상과 일치될 수 없는 교회의 속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교회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물음은 오늘날 단순히 이론에만 그치는 질문이 아니며,⁵⁾ 오늘날 목회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 여기에 대한 개혁주의적 바른 해답을 가져야만 목회자는 바르게 목회 할 수 있을 것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기 원하는 성도들도 자신들이 해야 할 일

4) 조영엽, 『교회론』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7), 5-6.

5) Hans Kung, *Was Its Kirche*, 이흥근 역, 『교회란 무엇인가?』 (왜관: 분도출판사, 1987), 76.

들을 찾아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론은 오랫동안 신학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세계 교회 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의 제1차 총회에서 게오르게스 플로로프스키(Georges Florovsky)는 교회론이 신학적인(Pretheological) 단계를 거의 통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⁶⁾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세에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이, 그리고 16세기에 구원론이 그랬던 것처럼, 기독교론과 삼위일체론은 4세기와 5세기에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일치된 주목은 결코 교회론에 대해서는 집중되지 않았다.⁷⁾ 심지어 5세기 초의 어거스틴과 도나투스파의 논쟁과 교회가 무엇인가에 관한 중심적인 문제에는 실제로 도달하지 않았다. 콜린 윌리엄스(Colin Williams)는 아마도 교회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인지, 교회 그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직접적인 신학적인 주목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하였다.⁸⁾ 그러나 교회의 자기 이해는 교회의 방향과 행동을 결정 지을뿐만 아니라 세계에 하나의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교회는 우리에게 증거 해준다.

오늘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종교개혁 전통에 충실하여 성경의 권위와 근원의 필요성 및 복음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의 입장과 그러한 보수주의적인 전통적인 구원관을 비난하면서, 교회가 인간의 공동생활을 위한 세속적인 사명에 참여하는데서 비로소 완성되어 진다고 말하며, 「교회를 세상속으로」 이끌려는 자유주의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까지 서로의 약점만을 지적하면

6) Colin W. Williams, *The Church, New Direction in Theology Today*, Vol. 4 (Philadelphia: Westminster, 1969), 11; Millard J. Erickson, *Christian Theology*, 신경수 역, 『복음주의 조직신학』 (경기도: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216.

7) 위의 책, 217.

8) 위의 책.

서 서로에 대하여 올바른 평가를 내리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교회의 본질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교회의 기능을 소홀히 다루었고, 자유주의에서는 기능으로서 교회의 역할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중요한 본질적 원리를 간과하고 말았다.

그러나 개혁 교회는 교회의 본질과 기능이라는 두 부분이 모두 교회론에 필요 불가결적인 요소라고 믿는다. 따라서 이 두가지 측면이 양극으로 달려서는 안되며 효과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論文)에서는 성경적 원리에 충실하면서 교회의 본질에 치중되었던 칼빈의 교회론(敎會論)과 본질적인 것을 무시하고 세상을 향한 역할만 강조한 몰트만의 교회론을 비교하고 개혁신학적 입장에서 평가하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론 정립을 위해서 노력해 보고자 한다.

B. 연구(研究)의 범위와 방법(方法)

두 신학자가 교회론을 연구 비교함에 있어서, 모든 신학이 역사적 컨텍스트를 떠날 수 없기에 II장에서는 칼빈과 몰트만의 교회론이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고 그에게 영향을 준 신학적 배경에 대해서 연구하여 서로 다른 교회론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그리고 III장에서는 교회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칼빈과 몰트만을 비교하며 두 사람이 말하는 교회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IV장에서는 교회가 교회되게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올바른 교회에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하는지 (교회의 표지)에 대한 두 신학자의 견해를 비교 평가해 볼 것이다. V장에서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두 사람을 비교해 가면서 개혁주의 입장에서 평가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VI장에서 본 논문(本論文)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개혁주의 교회관에 대해서 몇가지 제언을 하겠다.

본 논문(本論文)에서 주로 참고하는 책은 칼빈의 교회론에 있어서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참고 하겠고, 몰트만의 교회론에서는 몰트만이 쓴 「성령의 능력안에 있는 교회」를 참고 할 것이다.

II. 칼빈과 몰트만 교회론의 배경

A. 칼빈의 교회론 형성 배경

1. 고대교부들의 전통배경

칼빈 교회론의 배경을 논의함에 있어 우리는 그의 신학적 배경을 논의하는 데까지 범위를 넓혀야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교회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론’은 칼빈신학의 결론(結論)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1권에서 제3권까지의 결론으로 ‘교회론’을 제4권에 비치하되 그의 전 작품 분량의 삼분의 일을 할애 하였던 것이다. 사실 그의 작품은 현실교회를 봉사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으로서 ‘교회론’을 목적(目的)으로 쓰여졌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칼빈의 신학적(神學的) 경향을 그의 역사적 상황과 관련시켜 살펴보기로 하자.

고대교부들의 전통에 대한 연구는 칼빈으로 하여금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게 한 중요한 계기였다. 칼빈이 아직 인문주의 자로서 프랑스왕의 박해를 피하여 친구 루이 루틸데(Louisdu Tillet)의 집에서 일년반을 묵고 있는 동안, 그 친구 서가에 꽂혀있는 수 없이 많은 책들 중에서 중세와 고대교부들의 작품들을 접하게 되었다. 칼빈은 이 때에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였다.⁹⁾ 이 책은 사도신경을 토대로 하였는데, 이 책의 주된 목적은 개신교도는 사도신경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단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보여주

9) Otto Weber,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서울: 이레서원, 2001), 17.

기 위한 것이었다. 루터와 칼빈등은 새로운 신조를 교회에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사도시대의 신앙과 생활로 되돌아가도록 인도했다. 그 누구보다도 칼빈은 복음을 단순하게 받아들인 처음 3세기 동안의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⁰⁾ 사도신경을 초대교회의 전통에 호소하여 저술하였지만, 어디까지나 그 전통도 성경의 확고한 지지위에 받아들여졌다. 칼빈의 고대교부들의 전통에 호소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로마 카톨릭의 거짓 전통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일곱 장에 걸쳐서 교황 제도를 맹렬하게 공격한다. 교황주의자들이 이끄는 교회는 참교회가 아니므로 거기에 연합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교황주의 전통에서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근본적인 문제 곧,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였고, 거의 완전히 타락하여 복음을 설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칼빈의 견해를 따를 때 로마카톨릭 교회는 완전히 타락하여 더 이상 구원의 기회를 만들어 주지 않았다. 구원의 외적인 수단으로서의 교회의 존재의 의의 이제 로마카톨릭 교회에서는 사라져 버렸다. 칼빈은 사도적 전통을 바로 이어받지 못한 교회를 교회로 간주할 수 없었다. 교황의 성례전의 부패, 구원의 열쇠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세속적 통치와 지배권을 주장하는 죄악, 교회의 유대주의적 예식들과 가증스러운 미사등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훼방하는 것들이었다.¹¹⁾

칼빈은 제도적 국면을 중심으로 그의 교회론 전체를 전개하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칼빈이 카톨릭의 전통을 일부 수용하지 않는가 하고 의심할 이유는 없다. 칼빈의 교회제도는 구원론을 중심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구원을

10) A. M. Renwick and A. M. Harman, *Story of The Church*, 오창윤 역, 『간주린 교회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118.

11) G. S. M Walker,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역, "칼빈과 교회" 『칼빈에 관한 신학논문』 (서울: 기독교문사, 1096), 222-24.

무너뜨리는 로마카톨릭의 제도와는 전혀 다르다.

2.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고대교회의 가장 탁월한 인물이었다. 그로 하여금 교회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끔 만든 것은 도나투스파와의 논쟁에서였다. 그에 의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역이요, 그분의 신비스런 몸이요, 그분의 신부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이다.¹²⁾

어거스틴의 교회론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몸으로서의 교회 관념이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이다.¹³⁾ 이러한 개념은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려고 성 육신한 것이라고 말한다.¹⁴⁾ 그리스도는 이제 단순한 개인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하나의 단위, 하나의 전체, 한 몸이 된 것이다. 성경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신부와 신랑의 신비한 예표로서 설명하고 있다.(엡 5:31-32)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한 몸 안에서 다른 지체와 유기적인 통일성을 가지며, 또한 다른 지체보다 뛰어나야 하고, 다른 지체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이 몸은 여러 지체를 가지면서 내적 통일성을 가지게 되며 이것은 새로운 거듭남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다.¹⁵⁾

어거스틴은 교회의 신성은 교회 성원의 의존하지 않고 오직 교회의 머

12) J. N. D,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김광식 역, 『고대 기독교 교리사』 (서울: 한글, 1980), 471.

13) Hans von Campenhausen, *Lateinische Kirchenvater*, 김광식 역, 『라틴 교부연구』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95), 328.

14) 위의 책.

15) 위의 책.

리와 성화의 기능에 직접 연결된다고 말하면서 가건적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 즉 예정된 자와 예정되지 못한 자들로 섞여있다. 그래서 가건적 교회밖에도 예정된 자가 없지 않으며, 예정된 자만이 불가견적인 신성한 교회의 성원이 된다고 말한다.¹⁶⁾ 이 견해는 후에 칼빈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3. 루터

a. 신자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교회는 본질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Congregation fidelium)이다.¹⁷⁾ 온 세계를 향하여 단 하나의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공동적인 교회가 있는데, 이는 ‘성도들의 모임’(Congregation)이요, ‘총회’(assembly)이다. 이는 성령께서 모으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성례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게되는 지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다.¹⁸⁾ 이로서 교회는 성직계급 중심의 교회에서 벗어나 신자 중심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는 본래적 의미를 갖게 되는데 루터에 의하면 기독교인은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그리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이다.¹⁹⁾

b.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행해지는 곳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서이다.²⁰⁾

16) 위의 책.

17) J. L. Neve,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Vol I,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서남동 역, 『기독교 교리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437

18) 이장식, 『기독교 사상사 제2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218.

19)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 출판사, 1988), 58. 루터는 교회 건물을 뜻하는 Kirche 보다는 성도의 교제(Communio sanctorum)를 즐겨 사용한다.

따라서 믿음을 생기게 하는 말씀의 선포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이며,²¹⁾ 그리고 성례전을 통하여 그 믿음이 확인되므로 성례전 역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루터는 말한다.²²⁾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으로 교회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말씀을 선포하여야 하고 복음은 기록될 뿐 아니라 육체적 음성으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³⁾

4. 로마카톨릭의 부패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교회본연의 모습을 떠나 잘못된 길로 들어서 타락의 극치를 달릴 때 칼빈은 새로운 교회개혁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칼빈은 부패한 로마교회를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중심으로 한 교회관을 수립하였으며, 교회를 혼란시키며 불순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하나 하나씩 개혁해 나갔다.²⁴⁾

그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핵심체가 쓰러지면 교회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²⁵⁾ 칼빈은 타락한 로마교회를 대항하여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다.

교황지배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신에 기만으로 가득찬 악한 통치

20)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1: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10:17).

21) William Placher, *A History of Christian Theolog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3), 267.

22) Phillip Schaff, *The Principle of Protestantism* (Philadelphia : United Churchpress, 1964), 201.

23) Paul D. L. Avis, 이기문 역, 『종교개혁자들의 교회관』 (서울: 컨콜다아사, 1987). 103.

24) 신복윤, “칼빈의 교회론,” 『신학지남』 (1976): 25.

25)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신복윤 외 3인 역, 『기독교 강요 IV』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45.

가 지배하고 있으며 그것이 교회를 질식시키고 있다. 주의 성찬 대신에 가장 추악한 모독행위로 대체 되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참을 수 없는 각종 미신으로 더럽혀졌다. 기독교는 교리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음에도 교리는 완전히 매장되고 대체되었다. 공중집회는 우상숭배와 불경건을 가르치는 곳이 되었다.²⁶⁾

당시의 교회 상태를 가르켜 칼빈은 마치 여로보암 시대의 이스라엘과 비슷하다고까지 말한다.²⁷⁾ 중세교회에 있어서 종교적 행위의 핵심은 ‘미사’인데 이것은 성만찬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신성 모독으로 느껴졌다. 로마교회는 감독직에 필요한 자격을 무시하고 평신도들의 투표 없이 무자격자를 임명했다. 그리하여 술주정뱅이나 음행자, 상습적인 노름꾼들이 주교로 추천되었으며, 심지어는 열 살도 되지 않은 소년을 교황의 허락으로 주교로 만들었던 것이다.²⁸⁾ 그는 다음과 같이 로마천주교의 잘못에 대해서 말한다.

그들에게는 구제물자 분배나 구제하는 일과 같은 그들이 옛날에 하던 일은 전혀 없어졌다. 교회수입의 절반이 빈민들에게 가던 것이 지금은 한 푼도 가지 않게 만들었다. 교회법도 명백하게 사분의 일은 빈민들에게 쓰게 하고 또 사분의 일은 감독들에게 배당해서 손님대접과 자선 사업에 쓰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다.²⁹⁾

칼빈은 이렇게 당시의 교회가 타락하여 세상 재물에 욕심을 두고 자기 자신의 호화로운 치장에만 관심을 두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였다. 또한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구제하는 일을 망각한 잘못된 길로 빠진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칼빈은 교회개혁에 착수하였다.

26) 위의 책, 2.

27) 위의 책, 7.

28) 위의 책, 1.

29) 위의 책, 15-16.

로마교회는 교황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 대신에 온 교회를 주관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리에 있어서도 로마 교회는 임으로 교리의 순수성을 완전히 더럽혔다고 칼빈은 보았다.³⁰⁾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기분에 따라 교리를 만들어 내며 후에 이 표준에 따라 신조를 믿으라고 요구한 것이다.³¹⁾ 이러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칼빈은 「교회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 내서는 안 된다. 즉 주의 말씀에 계시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며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³²⁾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결론(結論)적으로 칼빈은 로마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서 교황의 권위를 앞세워 말씀에 의거하지 않은 교리적 무오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개혁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그는 사도신경의 순서에 따라서 기독교 강요를 전개해 나갔는데 그 초반에는 교회론이 성령론의 일부로 취급되었다가 판을 거듭할수록 교회에 대한 설명이 길어졌고 마침내는 교회론이 딴 책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B. 몰트만의 교회론 형성배경

1. 고백교회 운동과 세계 2차 대전

몰트만의 교회론은 고백교회운동과 바르멘선언³³⁾의 영향을 받았다. 먼저

30) 위의 책.

31) 위의 책, 10.

32) 위의 책.

33) 김영한, 『바르트에서 몰트만 까지』 (서울: 기독교 출판사, 1982), 157. 바르트의 영향으로 나온 바르멘 선언은 1934년 고백교회가 그리스도의 왕권 교리를 기초하여 나치즘에 적극 저항운동을 펼친 것으로 그 1항은 다음과 같다. 「그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된 대로 예수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야하고, 삶과 죽음에

고백교회운동이란, 나치주의 자들을 지지한 대다수의 독일 루터교회의 '독일적 그리스도인들'운동에 저항했던 교회운동이다. 이 고백교회와 바르멘 선언은 칼바르트가 1920년대에 신학의 혁신을 일으켰고, 1930년대에 그 절정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에서 출발한다.

바르멘 선언에서 요구한 것은, 교회는 다만 그리스도만을 주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과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권력, 인물 즉 어떠한 피조물의 신격화, 절대화를 용납하지 않는 절대은총의 결정적인 선언이었다.

그러므로 이 선언은 교회의 메시지와 선교, 교회의 삶은 사회적 정치적 현실에 대하여 중립적이거나 무관심 할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백교회와 바르멘 선언의 사상은 나치 지배아래 순교를 당한 본회퍼의 제자적 교회의 모습을 낳기도 하였는데, 본회퍼의 제자적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의 주권보다는 이 주권아래서 사는 사람의 복종의 삶, 책임적인 삶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다. 본회퍼가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이미 안 것을 살려고 하는 모험」이었다. 신앙이 안 것을 복음 적으로 옳다고 해도 그것이 복종의 직접성으로부터 끊어지는 때는 추상적 신앙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추상적 신앙, 교리적으로는 알고있으나 행함이 없는 신앙, 그리고 거룩함이 없는 신앙, 본회퍼는 그것을 배격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은 몰트만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 까닭은 몰

있어서 우리가 신뢰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교회가 교회선교의 근원으로서 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그리고 이 말씀과 나란히 해서 또한 다른 사건들, 권세들, 형태들, 진리들을 하나님의 계시로서 인식할 수 있고 또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룩한 가르침을 거부한다。」

트만이 신학공부를 시작한 것이 그가 전쟁 포로로 영국의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생활을 하던 시대였기에 그의 신학의 결정적인 계기를 인간과 그 세계의 고난의 문제였으며, 이 고난의 현실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를 질문하는 신정론(神政論)의 문제였다.³⁴⁾

2. 칼 바르트(Karl Barth)와 헤겔 철학

몰트만이 어떤 면에서는 바르트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그는 바르트의 영향을 받았음에 틀림없다. 바르트가 성경을 객관적인 어떤 권위나 상징으로서만이 아니라 성경의 텍스트를 인간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산 말씀의 표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신학의 모든 내용은 빈 것이 되며 인간의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신학은 이 말씀의 해석에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³⁵⁾ 이에 대해서 몰트만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독교 신학은 철저히 성서신학이 되어서 성서를 기초한 신학이 되어야 하는데, 그 까닭은 우리는 성서 안에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는 회상을 만나고 성서가 그리스도 나라의 미래를 열어 줌으로 선교 행위적 실천적 해방의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³⁶⁾

결국 바르트와 몰트만은 철저히 성경의 절대성은 인정하고 있지는 않는 듯하다. 그러나 그들의 계시는 철저하게 기독교론에 근거하고 있다. 신학에 있어서 예수그리스도의 위치를 설정함에 있어 바르트와 몰트만이 신학의

34) J. Moltmann,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 박봉량 외 4인 역,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2), 16-17.

35) 박봉량, 「교회학 방법론(1)」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463.

36) J.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조성로 역, 『정치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4), 10.

모든 사유를 예수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출발한다. 바르트는 삼위일체론을 기독교론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안에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삼위일체 되신 존재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결정된 것이 오직 그리스도안에서 계시되었다고 한다. 몰트만도 기독교론을 역시 삼위일체 적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예수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으로 규정하여 바르트와는 다른 삼위일체적 기독교론을 정립한다.

몰트만은 「하나님의 죽음」의 개념, 그리고 이 개념을 중심으로 한 헤겔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게된다. 그리하여 현대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패의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의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것이 몰트만의 신학에 있어서 한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악한 현실을 몰트만은 제2차 세계대전 속에서 그리고 포로수용소에서 현실적으로 체험하였으며 하나님이 없는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계의 주가 될 수 있으며 이 세계를 다스리는 분으로 인식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문제는 몰트만 희망신학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 것이다.

3. 괴팅엔의 세 교수

a. 오토 베버(Otto Weber)

베버를 통하여 몰트만은 칼빈주의의 신학적 영향을 받았다. 칼빈주의는 교회와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세계의 구체적인 현실이 언제나 바르게 변화되고 개혁 될 것을 가르친다.³⁷⁾ 또한 그의 종말론이 몰트만의 신학에 영향을 주었다.³⁸⁾ 그의 견해에 의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세계의 종말론이

37) 김균진, 『헤겔철학과 현대신학』 (서울: 기독교 출판사, 1980), 217.

38) 위의 책, 23.

란 세계사의 마지막에 올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적인 것이다. 그것은 이미 예수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였으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지금도 실현되어가고 있다. 허무한 것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로서 이 세계의 방향을 빠르게 교시해야 할 선교적(宣敎的) 사명을 가진다. 이와 같은 현재적 현실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종말론은 아무 쓸모도 없는 하나의 추상적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b. 한스 요하힘 이반트(Hans Joachim Iwand)

몰트만의 학문적 배경을 형성하는 한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죽음」의 개념, 그리고 이 개념중심의 헤겔 철학이다.³⁹⁾

몰트만은 현대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제의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의 문제를 해결코자 고민하였다. 이 세계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主)가 될 수 있으며 이 세계를 다스리는 분으로 인식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문제는 몰트만 신학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이 문제를 헤겔은 기독교 삼위일체론에 기초한 그의 정신변증법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했고, 이것을 몰트만은 그의 스승인 이반트를 통하여 계승하고 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제6장에 나타나 있는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은 이반트를 통한 헤겔의 신학적 관심을 구체적으로 관찰시킬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c. 에른스트 볼프(Ernst Wolf)

볼프는 주로 하나님의 계명과 사회의 구체적인 헌신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했다. 그는 그의 논문(論文) 「peregrinatio」에서

39) 위의 책, 218.

이 세계속에 있는 기독교의 성격을 말하고 있다. 즉 교회와 신학은 낯선 곳에서 여행하는 존재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대중과 그 사회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속한 사회와 대중을 위하여 몰트만의 신학은 기독교 신앙이 가진 사회적 차원을 문제삼는다.

C. 평가: 시대의 산물로서의 교회론

역사적인 면에서 볼 때 칼빈은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상황에 살았던 사람이다.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없었고, 세속의 권력보다 교회의 권위가 우선 시 되던 시대였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패는 세상에 고통을 안겨주었고, 세상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칼빈 당시의 상황은 신학적인 오류로 세상을 억압하는 상황에서 그의 교회에 대한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정리했으므로 말씀에 근거한 바른 교회, 즉 유형교회보다는 무형교회를 강조하게 되었고, 역사적이고 동적이라기보다는 영적이고 정적인 면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래서 칼빈의 교회론의 강조점은 하나님 중심적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에 가장 중요한 표지로서 강조되었다.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수호하고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임무가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몰트만은 교회론은 다분히 인간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 몰트만의 신학에 영향을 준 것은 2차 세계대전과 그 상황가운데 발생했던 고백교회운동이다. 2차 대전을 겪었던 몰트만은 전쟁으로 인해 고난받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는 신정론(神政論)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⁴⁰⁾ 당시 세상일에 무관심했던 독일의 루터교회 속에 살고있던 몰트만은 고백교회운동과 바르멘 선언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그로 하여금 「인간」에게 관심을 갖게 했고, 교회의 역동성에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그는 행동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한다. 교회는 외형적으로 그 시대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만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다. 2차 대전의 비극을 경험하고 있었던 그가 무기력한 교회를 보면서 품을 수 있었던 당시의 상황이다.

이 두 신학자의 차이는 사상적인 배경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칼빈은 소위 1800년대 이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신학자이며, 몰트만은 이 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신학자이다. 1800년은 사상적으로 합리주의가 발생하게 된 중요한 시기이다. 합리주의 철학의 발흥이후 세계관은 신 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변화된다. 쉐퍼박사는 유럽에서 1890년은 인과율이 거부되고 반 정립의 진리인출이 거부된 전통적인 세계관의 파괴를 가져온 해(年)라고 말한다.⁴⁰⁾ 칼빈은 신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합리주의 이전의 신학자이다. 그에게 있어서 신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며, 교회의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칼빈은 초대교부들과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이다.

그러나 절대정신과 변증법적인 방법으로 신의 존재를 해결하려고 했던 헤겔 철학과 계시관에 있어서 칼 바르트와 괴팅겐의 새 교수의 영향을 받은 몰트만의 신학은 다분히 실존적이며 합리주의적인 토양 위에서 있다. 몰트만의 이러한 사상적인 배경은 내적인 본질의 일치보다는 「삶의 상황」이 우선 시 되며, 때로는 삶의 상황이 교회의 본질보다 앞서 강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상황이 행동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상황에 맞추기 위한 이론이 정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40) J. Moltmann,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 16-17.

41) Francis A. Schaeffer, *The God Who Is There*, 홍치모 역, 『기독교와 현대사상』 (서울 : 성광문화사, 1995), 21

것이다. 항상 말씀에 입각한 원론이 먼저 나오고 그것에 근거해서 행동의 결단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서 행동을 중요시한다면 교회는 칼빈이 말하는 말씀중심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참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교회론이 시대에 따라서 원론마저 마음대로 바뀔 수는 없지만, 원리에 충실하면서 그 처한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묻는 교회론이 나와야 한다. 칼빈과 몰트만은 그들이 처한 시대에 고민하면서 이러한 교회론이 나왔다면 이 두 교회론을 보완 수정하여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앎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성경적 원리에 충실한 개혁주의의 교회론이 정립되어야 된다고 본다.

Ⅲ. 교회의 본질적 측면에서

A. 교회의 본질(本質)에 대한 칼빈(John Calvin)의 입장.

칼빈은 교회의 본질을 ‘성도의 교통’에서 찾는다.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란 구절이 나오는데, 이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한 형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그가 특히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신자가 하나님을 유일한 아버지로 섬기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기 때문에, 결국 모든 신자는 형제의 사람으로 연합하게 되어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나누어 가진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본질을 성도(교회)의 교통이라고 말한다.⁴²⁾

1.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4권 1장 제목에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라고 쓰고 있다.⁴³⁾

이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여 기르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천사가 될 때까지 보호, 지도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⁴⁴⁾

42)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12:27). 성도들,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단순히 시민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과 참 지체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이다.

43)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강요 IV』, 1.

44) 위의 책, 4.

하나님께서서는 이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언제나 기뻐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유아와 어린이일 동안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 받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지도와 보호를 받아 성인이 되고 드디어는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⁴⁵⁾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또한 어머니가 될 것이다.⁴⁶⁾ 칼빈은 어머니로서의 교회가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수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회를 어머니라고 한 표현은 칼빈 자신이 만들어 낸 말은 아니다. 어거스틴 이후 로마교회에서 교회의 절대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사용해 오던 용어였다. 그러나 칼빈은 그와 같은 의미로 이 용어를 쓴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신앙의 훈련으로써 교회의 교육적 사명을 강조한 말이며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진 로마교회와는 달리, 어머니로써 자식을 훈련하듯 신자들의 신앙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하여 주는 영적 양식을 거절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 받기에 합당하다’고 칼빈은 말한다.⁴⁷⁾ 이렇게 교육 훈련을 강조한 칼빈의 교회관은 제네바 교회에서는 물론 그 후 개혁교회의 특성을 이루는 동기가 되었다.⁴⁸⁾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의 가능성은 없다」고 말할 때 구원의 능력이 교회 자체 안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다. 그가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 역사 하시는데 이러한 구원의 수단을 거역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칼빈은 말씀의 선포를 교회의 핵심적인 기능으로 보았다. 그는 참 교회의 지표를 말할 때에는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의 집행을 들고있는데, 성례전도 또한 말씀으로 기울어지므로 결국 그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45) 위의 책, 1.

46) 위의 책.

47) 위의 책, 4.

48) 박근원,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 (서울: 기독교서회, 1978), 167.

것이다. 결국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약점을 돕기 위해 주신 가시적 교회이며, 말씀의 선포를 통해 예수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신앙의 출생과 양육을 가능케 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유일한 기관이다.⁴⁹⁾ 로마카톨릭 교회가 제도적 입장을 강조하는 것과는 반대로 칼빈은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구원의 기관으로서의 교회를 강조하였다. 어거스틴은 「우리는 우리주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의 교회를 사랑합시다. 전자를 아버지로서, 후자를 어머니로서」라고 말한다.⁵⁰⁾

2.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엡 1:23).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생활에 오시는 영역이 바로 이 교회이다. 그리스도가 이 교회 안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 때문에, 성도의 연합이 완성되며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진다(엡 4:12). 그리고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안에서 우리는 자라며(엡 4:15) 서로 한 몸이 된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안에서 모두가 한 몸이 되는 것이다.⁵¹⁾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상은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매우 명백히 말해준다.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도 교회를 지배할 수 없다. 그리스도만이 그 통치자가 되시며 머리가 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 그리

49) 임상훈, “칼빈의 교회론 연구,” (미간행 신학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원, 1988), 10.

50) 이양호, 『칼빈의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174.

51)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강요 IV』, 59.

스도는 이와 같이 통치자의 자격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또한 현재 이 교회 안에 계셔서 직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⁵²⁾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요 집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교인도 소홀히 여김을 받을 수 없으며 그렇다고 어떤 한 사람이 자기를 앞세울 수 없다. 교회는 하나의 연합체 이기도하다 그러나 이 연합체는 말씀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⁵³⁾

칼빈은 사도신경 안에 있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한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든지 서로 나누는 원칙 하에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소집되었다.⁵⁴⁾ 우리가 교회를 믿는 근거는 자기가 교회의 지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는 물론 재물까지도 서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당시 로마교회가 초대 교회가 지니고 있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떡을 떼고 가난한 이웃과 함께 재물을 나누어주는 본래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교회가 나눔을 통한 성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역설한 것이다.

3.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칼빈은 자신의 교회론을 말하면서 편의상 가시적 교회와 불 가시적 교회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성경에 두 가지 교회가 있다고 말한다.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52) 신복윤, “칼빈의 교회관,” 『신학 정론』 제6권 1호 (1988): 9.

53) Otto Weber,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9.

54)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강요 IV』, 7.

어떤 때에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이 교회에는 양자로 삼으신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과 성령의 성화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들만이 들어 갈 수 있다. 이런 의미의 교회는 현재 지상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천지창조 이후 지금까지 선택받은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⁵⁵⁾

이 사실에서 우리는 칼빈이 교회의 불 가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본다. 불 가시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신자들의 공동체인 것이다. 루터에게서 칭의론이 그의 교회론의 기초가 되어 있듯이 칼빈에게서는 그의 예정론이 교회론의 기초가 된다.⁵⁶⁾ 즉 칼빈에게서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로 이 공동체는 한 성부와 성령을 가지고 서로 굳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세대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의 총수이다.⁵⁷⁾ 교회는 하나님의 영생으로 예정하신 신자들의 단체(body)이며 모임(Society)이다. 그리고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비밀스런 선택이다.⁵⁸⁾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불 가시적 교회가 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원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분만이 아시는 예정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는 곳에는 교회도 없다. 그 예정은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므로 교회는 말씀과 예전을 중심으로 모여진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⁵⁹⁾

이러한 불 가시적 교회와 함께 칼빈은 가시적 교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교회」라는 이름은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고백하

55) 위의 책, 7.

56)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4), 175.

57)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강요 IV』, 7-8.

58) 위의 책, 2.

59) W. Childs Robinson, *The Reformation : A Rediscovery of Grace*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62), 191.

는 세계 각처에 산재한 모든 사람을 가리킬 때가 많이 있다.⁶⁰⁾ 이런 교회를 가리켜 가시적 교회라고 말한다. 가시적 교회는 세례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되며, 성만찬에 참가함으로써 진정한 교리와 사랑에 의한 우리의 연합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일치하며,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직을 보존한다는 것이다. 이런 교회 안에는 이름과 외형만이 있고 그리스도는 전혀 없는 위선자들이 많이 섞여 있다고 칼빈은 말한다. 그는 진정한 교회와 거기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았다.⁶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며 또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지킬 때에 거기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엡 2:20)고 말한다. 아우구스 부르그 고백서에는 「복음을 올바르게 가르치며 집행하는 집단」으로 교회를 정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교회의 봉사와 수고에 의해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기를 원하셨고, 영적 양식과 구원에 유익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스스로 한 가족의 아버지이심을 보이려고 하셨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칼빈은 현실의 제한성을 지닌 교회를 적극 수용하면서 마땅히 되어져야 할 본래적인 교회상을 결코 잊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므로 가시적인 교회를 불 가시적인 교회에 수렴시켜 간다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을 지닌 성도가 이상적인 모습을 향해 끊임 없이 성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마땅히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다.⁶²⁾

60)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강요 IV』, 7.

61) Otto Weber,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51.

62) 위의 책.

B. 교회의 본질에 대한 몰트만의 입장

1. 성령의 교회

몰트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은 성령안에 있는 하나님의 현재에 기인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교회란 신앙과 희망사이의 긴장을 새롭게 창조하는 성령의 역사라고 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친교는 성령의 체험에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나라 안에서의 교회의 친교도 교회를 진리와 자유로 인도하는 성령의 능력안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⁶³⁾ 교회와 성령사이의 관계를 몰트만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교회는 역사 안에서 살아간다. 역사는 곧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기초되며, 그 미래는 포괄적인 자유의 나라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희망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회상에로 소급한다. 이 회상과 이 희망의 「현재적인능력」이라고 일컬어진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미래를 하나님의 미래로서 희망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능력, 이성, 의지로부터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⁶⁴⁾

몰트만에 의하면 신앙이 예수그리스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의 예수가 신앙을 창조하며, 희망이 미래를 하나님의 미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미래가 희망을 일깨워 준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그 나라에 대한 희망은 성령안에 있는 하나님의 현재에 힘있다.」⁶⁵⁾

63) 위의 책, 219.

64) 위의 책.

65) 위의 책.

성령의 체험이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가능케 한다.

a. 성례전

몰트만은 복음의 선포, 세례, 주의 만찬, 예배, 메시아적 삶의 양식등이 성례이며 이것은 미래의 새로운 계시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본다. 이 마지막 날의 신비스러운 계시와 하나님 나라에 현재는 성령의 종말론적인 은사 안에서 찾아지기 때문에 성령은 계시하며 믿음을 창조하는 능력이 된다.⁶⁶⁾ 몰트만에 의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분이시고 믿는 자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힘이다. 따라서 성령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곧 신비이며, 그것은 성례전이라고 불려야 한다고 몰트만은 말한다.⁶⁷⁾

몰트만은 복음을 성령의 종말론 사상에서 파악한다. 그에게 있어서 복음은 곧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이다.⁶⁸⁾」

종말론적이고 보편적인 미래의 약속으로서의 말씀은 자신을 넘어서 장차 올 것에 대하여 지시하고 밖으로 향하여 약속된 미래의 것이 도달할 세계의 깊이에 이른다. 그렇게 하여 말씀은 자기 자신의 미래를 향한 내적 초월을 가진다. 하나님의 자체로 종말론적인 선물이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춰진 미래가 세상을 향하여 이미 현재한 현실이 된다.⁶⁹⁾

그런데 이 복음의 선포는 언제나 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 복음을 선포하고 그 안에서 그것을 실현하는 공동체는 「메시아 공동체」, 「이야기하

66) 위의 책, 225.

67) 위의 책, 228.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성례전을 은혜의 방편으로 보는 반면에 몰트만은 성례전을 성령의 역사로 해석한다.

68) 위의 책, 240.

69) J. Moltmann, *Theologischer Hoffnung*, 전경연 역, 『희망의 신학』 (서울: 현대사상사, 1973), 436-37.

는 공동체」, 그리고 「희망의 공동체」이다.⁷⁰⁾

성령이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새로운 창조를 초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례를 통하여도 신자들은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와 친교 하게 된다. 몰트만에 의하면, 기독교에 있어서 세례를 복음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건이며, 행동 속에서의 희망이며 동시에 부활의 삶으로서의 표징이고 세상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역사의 삼위일체적 관계의 한 부분이다. 세례는 이미 일어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붙여 사람을 잠그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가져올 나라의 미래를 그에게 도장찍어준다.⁷¹⁾ 그러므로 기독교는 세례로부터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일어난 인간 해방을 지시하는 소명이다. 이 세례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서 새로운 사권이 없다면 세례의 진정한 의미-단편적이고 불완전한 인간의 삶을 삶의 충만과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과 결부시키는 것-를 실현시킬 수 없다고 몰트만은 말한다.⁷²⁾

세례가 은혜의 표징이며 종말론적인 태동의 표징이라면, 주의 만찬은 희망의 표징이며 종말론적인 도상의 표징이다. 또한 세례와 주의 만찬은 ‘교회의 삶의 표징’이며 ‘공적인 신앙고백의 표징’이며 ‘메시아적 시대의 표징’이다.⁷³⁾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과거와 미래가 이 식사에서 동시에 현재화되며, 이 현재화는 모인 공동체를 죄어로 인도하는 세계의 세력들과 법칙들로부터 해방하고 이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미래를 확신케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한 식탁의 사권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그

70) J. Moltmann,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 246-48.

71) J. Moltmann, *Theologiesher Hoffnung*, 437.

72) 위의 책, 263-64.

73) 위의 책, 265.

것은 또한 메시아적 사권을 위하여 사람들을 서로 연합시킨다.⁷⁴⁾ 예수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만찬을 가졌으며, 자신의 제자들과 식탁을 나누었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다. 그러므로 이 만찬은 과분한 은혜의 실례로서 하나님 나라의 태동가운데서 베풀어지는 즐거운 결혼잔치이며, 잃은 것을 찾으려는 사명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친구들의 식사이며, 우리를 위하여 찢겨진 몸과 우리를 위하여 부어진 그리스도의 피의 형태로 하나님 나라를 현재화한다.⁷⁵⁾ 그러므로 이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한 모든 사람들과 유대를 가지고, 안에서 세상을 위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의를 위한, 공적이고 공개적인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몰트만은 예배를 메시아적 축제로 이해하고 있다. 이 축제는 참여하고 친교를 나누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회상을 상기시키고 그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일깨워 준다고 본다.

메시아적 잔치는 모든 공동체의 잔치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사권을 성취한다.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계시되고 영안에서 체험되는 하나님의 통치는 삶의 전체에 새로운 성질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재 안에서 자유의 축제이다.⁷⁶⁾

몰트만에 의하면, 예수가 주신 자유를 통해 제의적 율법주의는 극복되고 평일과 축제일 사이의 구분이 없어지고, 예배와 율법이 새로운 일치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하나님의 세속생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이와 같이 메시아적 축제로서의 하나님의 미래에로 개방될 때, 그들은 사랑 안에서 삶의 고난과 기쁨을 위해 세계에로 개방되어 일상생활에서 희망을 일깨워

74) 위의 책, 280.

75) 위의 책, 271-72.

76) 위의 책, 283.

준다고 말한다.

b. 공동체로서의 교회

몰트만은 교회를 공동체(*Gemeinde*)로 인식하며, 이 공동체는 성령의 현존 안에 있는 공동체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성령의 과정 안에 있는 공동체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기독교적 삶은 메시아적 삶으로서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에 따라서 복음에 일치하는 삶이라 말한다. 메시아의 복음이 들려진 곳에서는 신앙이 생기게 되고, 신앙이 있는 곳에는 살아 있는 희망을 가진 거듭난 삶이 영위되며, 이러한 중생한 사람이 미래의 상속자이며 하나님나라에 시민이 되는 것이다.

몰트만은 교회의 임무⁷⁷⁾를 공동체에 위탁된 임무에 공동체 안에서의 임무들로 구분한다. 공동체에 위탁된 임무는 성령의 임무에 힘입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로 부름에 있다.⁷⁸⁾ 이 때, 모든 믿는 자들은 일반적인 제사장직, 일반적인 예언자직, 일반적인 왕직을 갖는 메시아적 백성이다. 예언자적 백성으로서 그는 자신의 삶과 그 삶의 형태를 통하여 하나님과 미래를 세상에 증언한다. 제사장적 백성으로서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재하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는 대속 행위를 증언한다. 왕의 백성으로서 그는 각자의 방식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온 세상의 해방을 위하여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다.⁷⁹⁾

교회의 본질적인 임무는 교회 전체에 의해서 수행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곧 선포(*Kerygma*), 친교(*Koinonia*), 그리고 봉사(*Diakonia*)이다. 따라서 이것들이 교회에 의해 분배되어 생겨난 다양한 임무들이 세상의 메시

77) J. Moltmann,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 323. 몰트만은 전통적으로 직무, 봉사 등으로 표현되어 온 것을 '임무'라고 표현한다.

78) 위의 책, 323.

79) 위의 책, 324-25.

야적 해방의 기능들이기 때문에 그 형태는 역사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⁸⁰⁾

몰트만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실한 희망을 가진 자는 역사의 갈등과 좌절을 견뎌 내고 지상에 남아있어 포기하지 않으며, 세상을 사랑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자행되는 불의와 지상의 숙면적인 파괴를 더 강하게 느끼게 되어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와 함께 슬퍼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충실한 것도 기도와 울부짖음의 열정을 증가시키는 것이요. 기도하는 자는 더욱 세상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한다.⁸¹⁾

나아가 몰트만은 교회의 과제로 친교를 말한다. 교회는 형제들의 공동체이다. 즉 군주나 노예가 없으며, 탐욕과 사유재산 요구권이 사라지게 되며, 사회적·문화적·인종적·성적 특권은 교회에서 그 힘을 상실한다.⁸²⁾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개혁으로 이루어진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친교로부터 성립되었다. 그의 친교로부터 교회는 거듭난다. 형제들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형제에게로부터 나오고 또한 새로운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 공동체의 친구들은 예수의 우정으로부터 산다. 우정의 정신으로부터 그들은 그들 자신을 새롭게 형성한다. 성례전 집전의 개혁, 성직들의 개혁으로부터가 아니라 구체적인 친교의 거듭남으로부터 교회는 현존하는 위기를 극복하게 될 것이다.⁸³⁾

지금까지 전개한 몰트만의 교회 이해는 「교회의 메시아적 이해」라고 부를 수 있다. 교회의 메시아적 형태이다. 이것은 예수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명에 교회가 참여함으로써 교회가 속해있는 모든 시대와 상황 속에서 교회에 주어진 메시아적 사명을 가능케 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몰트만

80) 위의 책, 329-33.

81) 위의 책, 307.

82) 위의 책, 338.

83) 위의 책, 339.

이 같은 교회의 모습을 조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역사를 이론적 근거로 삼는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2.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몰트만은 교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단순히 교회의 역사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있는 교회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는 교회는 자체를 스스로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자체의 사명, 의미, 역할들, 그리고 자체의 기능들을 다른 것들과 관계에서만 바르게 이해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각 사람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관계는 그가 속하고 있는 교회의 경험들과 그가 교회에서 고백하는 교회에 대한 신앙고백(*Credo Ecclesiam*) 사이의 관계이다. 그 다음에 미치는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역사와의 관계인 바, 이 역사로부터 교회가 나오고, 이 역사 안에서 교회가 살며, 교회가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역사의 완성을 희망한다. 또 다른 관계는 교회가 『때의 징조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때 교회가 속해있고, 이것을 겨냥하는 세계사적 상황과의 관계이다.

몰트만에게는 세계가 그 자체로서의 완결되거나 폐쇄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완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야 할 과정을 뜻하고 있다. 곧 몰트만에게 있어서 세계(Kosmos)는 미래를 향한 과정, 곧 역사를 의미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있는 세계를 「역사로서의 세계」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다. 몰트만은 이러한 신학적 근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이끌어 낸다.

a. 예수그리스도를 위한 교회

몰트만은 만일 교회가 어떤 특정한 부류를 위한 교회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라고 칭한다면, 교회의 자기 이해 속에서의 출발점은 그리스도이어야 한다」고 말한다.⁸⁴⁾ 그렇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스도는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우위성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신앙 문답 제54문에 가장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몰트만은 말한다. 거기에는 「당신은 거룩하고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전 인류 가운데서 선택된 이 공동체를 그의 영광 말씀을 통하여, 참된 신앙의 통일성에서, 세계의 태초부터 종말까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선택하고 보호하고 유지하며, 나는 공동체의 하나의 살아있는 지체요,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이다.

몰트만은 교회의 존재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위에서 말한 그리스도와 또 그가 행하는 것에 대한 고백을 통하여 대답된다고 말하며, 그리스도론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교회론의 문제는 그리스도론 적으로 대답된다는 것이다. 교회의 존재는 ‘선택하고, 모으고, 보호하고, 유지하는’ 그리스도의 활동을 통하여 기술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활동 안에서 자신의 참된 존재를 갖는다. 따라서 교회의 어떤 독자적인 존재론을 배제되며, 그리스도의 활동의 역사를 기술하는 것만이 허용된다. ... 하나님의 아들의 행동은 우주적이다. 그것은 공간적으로는 『전인류』 위에,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세계의 태초부터 종말까지』 모든 세대들에 미친다.⁸⁵⁾

84) 위의 책, 82.

85) 위의 책, 82-83.

b. 출애굽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출애굽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예수의 메시아적 사명에 참여하는 교회이다. 몰트만은 복음서와 제2이사야서에서 예수그리스도를 메시아적 사명을 가진 자로써 기대된 종말 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이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자라고 말한다. 따라서 복음 자체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자유를 위하여 회개하는 사람들과의 사이를 중재하는 것이다.⁸⁶⁾ 그리고 출애굽 공동체로서 교회의 메시아적 사명은 갇힌 자들을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로 불러들이며, 죄와 죽음에서 그 백성을 해방시키는 사명을 가진 것이다.

예수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메시아적 사명은 교회의 사명이 되고, 그의 역사와 함께 그의 복음은 세계를 위한 교회의 복음이 된다.

결국, 교회는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이 되고, 인간 해방의 메시아적 교회가 되는 것이다.⁸⁷⁾ 이 교회 운동은 새로운 종말 시의 출애굽이다. 따라서 메시아적 선교의 목표는 기독교의 확장이나 설립이 아니라 장차 올 나라의 이름으로 그 백성을 출애굽으로 해방하는 것이 된다.⁸⁸⁾

c. 십자가의 교회

몰트만은 여기에서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의 모습을 다루면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고 각각을 부활의 빛으로 해석한다.

첫째, 예수가 ‘하나님이 버린 자’로 죽었다고 한다.⁸⁹⁾ 그는 이전에 「나의

86) 위의 책, 96.

87) 위의 책, 98.

88) 위의 책, 98-99.

89) 위의 책, 109.

아버지」라고 불렀었던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막 15:34)라고 부르짖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죽은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자의 죽음만은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성령에 의하여 내어 주었다(히 9:14).⁹⁰⁾ 십자가 사건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다.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직무라면, 믿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에서부터의 해방을 위해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자들이다.⁹¹⁾ 몰트만은 오직 함께 고난받는 것으로부터만 대리의 제사장적 직무가 생겨날 수 있다. 십자가에 달린 자와 친교는 결국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보이게 사는 사람들, 곧 가난한자 불구자, 밖으로 쫓겨난 자, 갇힌 자, 박해받은 자들과의 현대적인 친교에로 들어가는 곳에서 실천된다. 십자가에 달린 분과의 친교는 인자의 가장 작은 형제들과의 친교에서 사는 것이다(마 25장)⁹²⁾라고 한다.

둘째, 십자가에 죽음은 법적으로 죄인의 죽음이다. 그는 법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정치적 선동가였기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정치적 차원을 갖는다. 예수는 고문당하고 정치적 피압박자로 죽었다. 그럼으로써 그는 고문당하고 처형당한 사람들과 아무 조건 없이 친교한다.⁹³⁾ 영문 밖에서(히 13:12) 십자가형을 통해 범죄자들과의 친교를 이룬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에 달린 자의 공동체로서 그의 헌신과 상실된 자들과 그와의 연대성, 그리고 그의 공적인 고난 속에 포함된

90) 위의 책, 145. 몰트만은 예수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곳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의 버림받음은 동시에 잃은 자의 구원을 위한 자기 자신의 헌신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며(갈2:20), 이것을 십자가의 신비와 하나님 자신의 신비가 계시된 '삼위일체의 공개된 비밀'이라고 한다.

91) 위의 책, 112.

92) 위의 책, 113.

93) 위의 책, 104-07.

다」⁹⁴⁾.

셋째, 정죄받은 하나님 모독자의 죽음이었다.⁹⁵⁾ 예수 자신도 「기록된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라고 하였다(눅 22:37). 그런데 그의 죽음은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하나님 없이 죽은 자의 부활로 인해 하나님 없는 자가 하나님과의 친교를 갖게된다.

d. 해방하는 교회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교회이며, 나아가 해방하는 교회이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해방을 받으면 새로운 생의 실천을 통해 그리스도의 해방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⁹⁶⁾

결국 교회는 해방의 행동을 하며, 해방의 작업을 지지하는,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업적을 위한 촉매가 되는 교회로서 세계를 해방하는 교회인 것이다. 몰트만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 세계의 세력들에게서 벗어난 사람만이 이 세력들의 힘을 해제하는 자유와 힘을 획득한다고 말한다.⁹⁷⁾ 따라서 예수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해방을 얻은 교회가 이 해방의 사역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지배는 부활하신 분의 지배이며, 죽음을 극복으로서 그리스도의 지배는 극복을 목표로 한다. 그렇기에 교회는 부활하신 분의 활동 때문에 새로운 생과 그들의 희망을 선사 받은 사람들의 친교가 되는 것이다.⁹⁸⁾ 몰트만은 이 세계에서 자유를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배에 일

94) 위의 책, 107-08. 몰트만은 여기서 교회는 '민중의 교회'가 되어야 하며,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십자가를 지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친교가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95) 위의 책, 102-03.

96) 위의 책, 120-21.

97) 위의 책.

치해야하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것을 반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우선 자신 안에서 반사하고 묘사해야만 하는데 만약에 주님의 요구와 사회의 요구에 충돌이 생길 경우에 있어서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몰트만은 교회가 어떤 공동생활의 질서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때에는 자신이 살고있는 사회의 지배 상황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채용하거나 그것을 따라 방향을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교회가 주에게 일치해야하고, 사회를 위한 새 생명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⁹⁹⁾. 몰트만은 계속해서 교회는 결코 인종차별을 하거나 그런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교회는 결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인종차별을 하거나 인종의 구별을 허락하는 종족 교회가 될 수 없다. 교회는 자기의 공동체 안에 계급의 구별과 위로부터의 계급투쟁을 정당화하는 계급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 해방하는 그리스도의 지배에 부합하는 교회를 위해 타당한 말은, '여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차별이 없고 종이나 자유인의, 남자나 여자의 차별이 없다. 그것은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갈 3:28; cf. 롬 10:12; 고전 12:13).¹⁰⁰⁾

그리고 공동생활에서는 신적인 법이 실천되어야 하므로 「어떠한 인종적, 계급적 또는 어떤 다른 구별을 용납할 수 없고, 국가나 사회가 그런 구별을 필요로 한다고 해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여 몰트만은 어떤 사회나 국가에 의해서 억눌리고 학대받는 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그냥 용납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 내지는 신의 법을 어기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¹⁰¹⁾

98) 위의 책.

99) 위의 책.

100) 위의 책, 122.

101) 위의 책, 123.

e. 작은 자들과 함께 하는 교회

몰트만은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현재 계신 곳에 있으며,¹⁰²⁾ 사도직 안에, 그리고 가난한 자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현존한다고 말한다. 그 성경적 근거로서 그는 요한복음 20:21-23을 든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자각했으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의 화해를 기원하고 있다고 말한다(고후5:20). 몰트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도들의 말」에 현재 하지만 역으로 사도적 말이 그리스도의 말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¹⁰³⁾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한 약속은 사도의 말씀, 성만찬, 세례 그리고 형제적 사귄 가운데 있다고 몰트만은 밝힌다(고전 11:23; 롬 6장; 마 18:20).¹⁰⁴⁾

그리고 그리스도의 현재 하심을 나타내는 말로 몰트만은 마태복음 25:31-46을 소개하고 있다. 거기에는 예수를 인자-세계 심판자-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 심판자는 사람들을 그 보좌 앞 왼편 오른편에 모았다. 이 심판의 장면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보는 것이 바로 심판자를 돌보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장차 올 심판자는 세상 안에서 이미 감추어져서 가장 작은 형제들, 주린 자들, 목마른 자들, 나그네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사이에 현존하신다.¹⁰⁵⁾ 따라서 몰트만은 사도직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가장 작은 자들은 교회가 어디에 소속하는가를 말한다고 한다. 그는 교회는 가장 작은 자들과 함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102) 위의 책.

103) 위의 책, 140.

104) 위의 책, 143.

105) 위의 책, 143.

C.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신학적 평가

칼빈은 교회를 「신자들이 어머니로서 양육하고 교육하는 기능」에 대해서 말하면서 무엇보다도 신실한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을 교회의 핵심적인 기능으로 보았다.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이 양육 받고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한 몸으로서의 「성도의 교통」을 중요시한다.

반면에 몰트만은 교회를 「신앙과 희망사이의 긴장을 새롭게 창조하는 성령의 역사」로 이해한다.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친교는 성령의 친교에 근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교회의 친교도 교회를 진리와 자유로 인도하는 성령의 능력 안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하며 교회에서의 성령의 역할을 강조한다.

또한 그는 교회의 본질을 성례전에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는 복음의 선포, 세례, 주의 만찬, 예배, 메시아적 삶의 양식 등이 성례전이고 이것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한다. 세례를 그리스도가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해 주는 것으로,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는데 그 소명은 인간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눌린 자들을 해방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 사실은 주의 만찬에 대한 그의 설명에서 곧 드러난다. 그는 주의 만찬에 참가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한 모든 사람들과 유대를 가지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평화와 의를 위한 공적이고, 공개적인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예수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다. 몰트만은 「출애굽 공동체로서의 교회」에서 교회의 메시아적 사명으로서 인간 해방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십자가

의 교회에서 십자가에 달린 분과의 친교는 결국 가난한자, 불구자, 밖으로 쫓겨난 자, 갇힌 자, 박해받은 자들과의 친교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나아가 그는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교회이고, 또한 해방하는 교회」라고 말한다. 그리고 공동생활에서는 신적인 법이 실천되어야 하므로 어떠한 인종적, 계급적 구별을 용납할 수 없고, 국가나 사회가 그런 구별을 필요로 한다고 해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몰트만은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현재 계신 곳에 있으며,¹⁰⁶⁾ 사도적 안에, 그리고 가난한자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현존한다고 말한다.

그 성경적 근거로서는 그는 요한복음 20:21-23,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린도후서 5:20,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라는 구절을 예로 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현재 하심을 나타내는 말고 몰트만은 마태복음 25:31-46을 소개하고 있다.

마태복음 25장 심판의 장면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본 것이 바로 심판자를 돌본 것으로 말하고 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장차 올 심판자는 세상 안에서 이미 감추어져서 가장 작은 형제들, 주린 자들, 목마른 자들, 나그네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사이에 현존하신다.¹⁰⁷⁾ 따라서 몰트만은 사도직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그는 교회는 가장 작은 자들과 함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 세상에서 볼 때에 칼빈의 교회관이 하나님의 주권에 기인 된 것이라면 몰트만은 인본주의적 착상에서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칼빈의 교회론이 원론적인 것이라면, 몰트만은 다분히

106) 위의 책.

107) 위의 책, 143.

실천적인 면에 강조를 둔 것이다. 하지만 실천적인 면이 성경의 원리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는데 몰트만은 상황을 먼저 두고 교회관을 정립하였기에 그 교회는 아래로부터의 교회가 되고 말았으며, 그는 교회는 하나의 정치 집단 정도로 전략시키고 말았으며 원컨대 몰트만은 교회에서 복음사역의 명예를 벗기고 인권운동의 명예를 씌운 것이다. 무모하게도 몰트만은 삼위 일체론부터 수평적인 사회적 평등관계로 조작하고 있어서 교회도 수평적인 공동체로 만들어 모든 세계 시민을 수평적인 평등관계로 만드는 이른바 해방운동에 종사 하도록 만들었다. 몰트만의 이러한 해방으로의 안내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여금 급기야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 같은 극렬한 혁명 전사의 옷을 입게 만들었다.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나 급진적인 사회관계를 추구한다는 데에는 다름이 없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 원론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원론이 없는 실천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되고, 성경에 근거한 실천의 원리가 제시되어야 한다.

덧붙여 개혁주의 교회에는 칼빈이 말한 대로 반드시 신실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초대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 강단이 약해져 간다는 소리가 들린 지 오래되었다. 학교 교육에 밀려버린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은 주일날 하루 한 두시간 정도로 끝나고 말았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로서의 교회가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에 태만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지 못하고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몇 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인은 그 이유 중에 성령의 능력이 결여된 설교와 약화된 교회교육 때문이라고 본다.

개혁교회는 학교 교육에 밀려나 교회 교육은 점점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한 교육을 통해서 신실한 일꾼들을 길러내고 이들로 하여금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개혁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라진지 오래된 유년주일학교의 수요예배도 부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주일 오전에만 참석하고 학교공부에 매어 달리는 중, 고등학생들도 주일오후예배 뿐 만 아니라 수요예배까지 참석시켜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야 만 한다. 그래서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최소한이나마 감당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도간의 교통도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리라 본다. 교회는 가능한 많은 시간을 성도들이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주일점심시간에는 전 교인이 함께 애찬을 나누면서 교제하도록 하고, 다양한 성경공부 반을 개설하여 말씀을 통하여 교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일날 밤에는 산기도 같은 훈련을 통하여 영적 재무장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IV. 교회의 표지(The Marks of true church)

A. 교회의 표지에 대한 칼빈의 입장

칼빈은 교회의 표지로서 신실한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의 시행을 들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들려지는 곳 또 성례전이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그대로 집행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하며,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한다.¹⁰⁸⁾

칼빈은 이와 같이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사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식별하는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번 강조하였다.¹⁰⁹⁾ 이것은 곧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집권체제에서 감독과 교황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는 외형적인 조직과 교직의 권위를 너무 중시한 나머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상실한데 대한 복음적인 회복을 기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말씀에 대한 순수한 봉사와 성례전 집행의 바른 의식은 충분히 보증이 되며, 이두가지 표적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우리는 확실하게 교회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다.¹¹⁰⁾

1. 말씀의 선포

108)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강요 IV』, 9.

109) 위의 책, 22-26.

110) 위의 책.

로마 카톨릭 교회에 있어서는 예배의 중심이 성례인데 반해서 개신교에서는 설교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에게 전파하는 것은 곧 구원을 얻는 신앙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편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믿음이 말씀을 들음에서 오기 때문이다. 칼빈은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 하리라”(사 59:21)는 말씀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는 직분(목사와 교사)을 통하여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참 교회일 수 없다.」라고 말한다.¹¹¹⁾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 말씀을 그 종을 통하여 전달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도록 그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게 하셨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순수하고 신실하게 선포되는 곳」이다.¹¹²⁾

하나님은 교회를 그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지배하신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절망한 사람을 소망으로 이끄신다.

그러므로 말씀의 선포를 위임받은 설교자의 중요성은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는 데 있다.¹¹³⁾

이같이 설교자의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한 칼빈은 말씀이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즉 성령이 역사하시면 인간의 말은 생명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말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111) 위의 책, 5.

112) 이장식, 『기독교 사상사 제2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231.

113)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강요 IV』, 5.

자신을 설교자에게서 분리하시면 그들에게는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고 말한다.¹¹⁴⁾ 그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단순한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령의 역사 모두를 불완전하다고 말했다. 성령은 말씀의 터 위에서만 교회를 바른길로 인도한다. 「성령은 교회의 안내자이다.」(요 16:7, 13),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요 14:26),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한다.」

그러면 기록된 말씀인 성령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칼빈은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 이르게 한 구속자이다.¹¹⁵⁾ 하나님은 그의 유일한 빛이요, 지혜요, 진리이신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자신을 인류에게 계시하지 않으셨다.¹¹⁶⁾

구약에서 종종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성자는 신약에 와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 성육신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의 능력에 맞게 낮추시는 일 중에서도 최고의 겸비이다. 구약과 신약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다같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인간의 약함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들 증거 하듯이 외적 도움으로 주어진 교회에서의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것이다.

2. 성례전

칼빈은 참 교회의 두 번째 표지를 성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114) D.W. Torrance and T.F. Torrance ed. by, *Calvin's Commentaries*, vol.12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59), 1072.

115) Wilhelm. Niesel, *The Gospel and The Churches*, 이종성, 김항만 역 『비교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101.

116) 위의 책, 32.

성례는 우리의 약한 믿음을 받쳐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의 선하신 뜻의 약속을 우리의 양심에 인치시는 외형적인 표이고, 우리편에서는 그 표에 의해서 주와 주의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주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확인하는 것이다.¹¹⁷⁾

칼빈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수단의 하나로서 성례전을 언급하면서 성례전에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였다.

성령은 성례전을 통하여 무슨 신비스러운 것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준다. 설교 말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이듯이 성례전의 본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신자들은 이 성례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받게 된다.¹¹⁸⁾

칼빈은 성례를 문서에 적힌 인장에 자주 비유하였다.¹¹⁹⁾ 로마서 4:11의 말씀으로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문서가 그냥 백지일 경우에 인장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나 보통 문서인 경우 그것은 인장이 있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로마서 4:11의 주석에서 칼빈은 아브라함의 할례가 의의 상속이라는 목적으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신뢰한 언약의 인장으로 설명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¹²⁰⁾

달리 말하자면, 성례는 말씀과 언약의 첨가된 것이어서 성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주께서는 그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르고 성례는 언약의 「표」라고 부르신다.¹²¹⁾

117)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강요 IV』, 1.

118) 위의 책, 17.

119) 위의 책, 5.

120) D.W. Torrance and T.F. Torrance ed. by, *Calvin's Commentaries*, vol.12 (롬 4:11).

121)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강요 IV』, 6.

그러므로 성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더욱 확실하게 믿게 만드는 행사이다. 선생이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아 인도하듯이 성례도 우리의 우둔한 능력에 알맞도록 가르치려는 것이다.¹²²⁾

칼빈은 성례에 대해서 다른 비유를 들어서 더 분명하게 말한다. 성례는 「우리의 믿음의 기둥」이라고 본 것이다. 건물이 기초 위에서 있지만 기둥으로 되어야만 확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과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고 그 위에서 있으며, 성례를 첨가 할 때에는 기둥으로 바친 것 같이 더욱 튼튼하게 서 있게 된다.¹²³⁾

칼빈이 성례를 비유한 또 다른 한가지는 거울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거울 속에서 볼 수 있다고 말한다.¹²⁴⁾ 우리는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확증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고 자라게 하며 성장시킨다. 이러한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칼빈은 먼저 내적 교사인 성령이 오셔야 한다고 말한다.

칼빈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데에는 말씀과 성례가 동등하게 역사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수단과 도구를 사용해서 만물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 즉 성례는 하나님의 도구로서만 가치가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통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성례를 마술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마치 성례에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칼빈은 하나님께서 성례에 그런 힘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한다.¹²⁵⁾ 마치 성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

122) 위의 책.

123) 위의 책.

124) 위의 책.

125) 위의 책, 14

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것이다. 칭의는 그리스에게만 맡겨져 있으며, 그것은 성례라는 인장으로 말미암음과 같이 복음선포에 의해서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성례가 없이도 완전히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한다.¹²⁶⁾

칼빈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 제시한 모든 표지들을 성례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그는 구약시대에도 성례가 있었다고 말한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생명나무가, 노아에게는 무지개가 성례였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의 성례는 신약시대의 성례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았다.¹²⁷⁾ 따라서 구약과 신약의 성례는 통일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칼빈은 신약의 교회를 위해서 세례와 성만찬이라는 두 가지 표징을 주심으로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마음에 언약을 인치셔서 우리 신앙이 언약할 때 보호하신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먼저 성례의 첫 번째 표징인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겠다.

a. 세례

칼빈은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인정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가입되는 입문의 표징이다’고 말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도움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데 있다.

이 세례로부터 우리가 얻게되는 신앙의 유익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죄 사함의 표이다.¹²⁸⁾ 즉 세례를 받을 때 전 생애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믿게 된다. 세례와 함께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성결은 계속적으로 유효

126) 위의 책.

127) 위의 책, 20.

128) 위의 책, 3.

하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죄의 씻음을 받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는 것과 그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되고 믿음으로 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¹²⁹⁾ 사도바울은 우리가 세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의로운 생활을 하도록 분발하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롬 6:4).p

셋째는 이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게 된다는 점이다.¹³⁰⁾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에 접붙임을 받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례는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 주는 것이다.

니이첼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세례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것을 중시한다. 즉 세례의 본래적 의미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¹³¹⁾

칼빈은 이러한 세례는 집행하는 사람의 공로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으며,¹³²⁾ 또한 세례식을 거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칼빈이 말한 세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세례는 봉헌의 징표인데, 세례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 영접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신앙고백을 하도록 해 주는 것이다.

129) 위의 책, 5.

130) 위의 책, 6.

131) Wilhelm. Niesel, 『비교교회론』, 218.

132)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강요 IV』, 16.

따라서 칼빈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6장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새로운 삶에 연합된다고 말한다.

b. 성찬

칼빈이 말하는 교회의 두 번째 표지는 성찬이다. 그의 책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는 성찬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밝히고 있다.

칼빈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서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종으로서가 아니고 아들로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세례에서 우리를 중생 시킨 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접붙이시며 택함을 받은 그의 권속을 만드신다.」라고 말한다.¹³³⁾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생명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양식을 주심으로 지혜 있는 가장의 책임을 다 하신다는 것이다.¹³⁴⁾

여기서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양식은 그리스도라고 칼빈은 말한다.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영혼은 그리스도에게서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다.¹³⁵⁾ 경건한 영혼들은 이 세례를 통해서 큰 확신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거기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 또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그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의 피는 참된 음료이며(요 6:55) 그것을 먹는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¹³⁶⁾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133) 위의 책, 1.

134) 위의 책.

135) 위의 책.

136) 위의 책, 4.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칼빈은 「먹고 마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뜻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그에게 참여함으로써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라고 말한다. 떡과 포도주가 신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삼는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 이것은 성령의 은밀한 능력이 그리스도의 몸에 임재를 가능케 한다고 칼빈은 본 것이다.¹³⁷⁾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임재하는 것은 어떻게 임재하는가? 혹시 공간적으로 임재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 교황청은 그리스도의 몸이 공간에 임재해 있어서 손으로 만지고 이로 씹으며 삼킬 수 있다고 말한다.¹³⁸⁾

중세의 스콜라신학들은 외형적 표징과 보이지 않은 실재와의 관계를 화체설로 설명하려 하였다. 이에 대한 칼빈은 「우리는 성만찬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지만 그리스도를 떡과 고착시키거나 떡 속에 포함시키거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¹³⁹⁾

칼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무한한 능력이 되는 일이라고 설명한다.¹⁴⁰⁾

성찬이라는 성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돕는 것이다. “주의 죽으심을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전 11:26)는 명령은 우리의 믿음이 성만찬에서 인정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라는 뜻이다.¹⁴¹⁾ 주

137) 위의 책, 10.

138) 위의 책, 12. 로마 천주교에서는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는 화체설을 주장한다.

139) 위의 책, 17.

140) 위의 책, 33.

141) 위의 책, 37.

께서는 우리에게 한편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과 평화와 화목을 권장하며 고취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서 성만찬을 제정하셨다. 주님은 성찬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시며 우리도 그와 하나가 되게 하셨다. 성만찬에서 제시되는 떡은 바로 하나됨을 의미하는 단결을 표현하는 것이다.¹⁴²⁾ 이와는 반대로 이 빵을 받아도 믿음의 영양과 힘을 얻지 못하며 감사할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무서운 독약이 되는 것이다.¹⁴³⁾라고 칼빈은 주장한다. 그리하여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말한다.(고전 11:17, 29) 믿음의 조건도 없이 사랑하겠다는 열의도 없이 돼지 같이 성찬에 뛰어드는 이런 사람들은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¹⁴⁴⁾

그러므로 사도바울은 각기 자기 자신을 살핀 다음에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셔야 한다고 명령한 것이다(고전 11:28).

그렇다고 해서 성찬이 완전히 사람들을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과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다.¹⁴⁵⁾ 칼빈은 이러한 성찬이 자주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당시 일년에 한번 성만찬이 집행되는 관습을 마귀가 만든 것이라고 까지 냉혹하게 비판한다.

결론적으로 성찬은 일생동안 우리를 양육하심에 대한 표시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찬에서 그리스도는 성령에 역사에 의해서 우리와 연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에

142) 위의 책, 38.

143) 위의 책, 40.

144) 위의 책.

145) 위의 책, 42.

게 있어서 성찬은 하나님이 역사 하시는 은총의 수단이므로 합당한 자가 참여해야만 한다.

c. 권징의 성실한 시행(The faithful exercise of discipline)

참 교회는 권징이 바로 시행되는 교회이다. 신자들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는 신앙의 표준이 있어야하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하는 도덕적, 윤리적 행위의 표준도 있어야한다. 칼빈은 교회 안에서 권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조그마한 가족 같은 사회에서도 규율이 필요하듯이 가장 질서가 경연해야 할 교회에서는 규율이 더욱더 필요하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훈이 생명인 것 같이 권징은 그 근육이며 이 근육에 의해서 몸의 지체들이 서로 결합되고 각각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¹⁴⁶⁾

교회는 교리의 혼란과 회원들의 군덕상의 추문이 있을 때에만 말씀의 순결함과 성도들의 성화의 생활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권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⁴⁷⁾ 칼빈은 12장에서 권징론을 다루고 있는데, 권징의 목적은 셋으로 구분하였다.¹⁴⁸⁾ 첫째는 추악하고 부끄러운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빼앗으려는 것이다. 품행이 단정치 못하고 불명예스러운 생활을 보내는 자가 하나님께 모욕을 끼치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엡 5:25)를 사악하고 모독적인 사람들의 소굴로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

둘째는 선량한 사람이 악한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타락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146) 위의 책, 1.

147) 신복윤, “칼빈의 교회관,” 『신학 정론』 제6권 1호, 39.

148)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강요 IV』, 8-13.

셋째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추악함에 대한 부끄러움에 놀라 스스로 회개 하도록 하고자 함이다.¹⁴⁹⁾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말로 견책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추방했고 고린도교회 신자들이 그를 오래 버려둔 것을 책망했다(고전 5:1-7).

고대교회는 범죄하여 교회에 누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면 우선 그런 사람을 성찬에 참가하는 것을 금하고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며 교회 앞에서 회개한 증거를 보이도록 명령했다. 그 뿐만 아니라 실수한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표시로서 엄숙한 의식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다. 고대교회에서는 이 권징에서 아무도 제외되지 않아서 군주나 평민이나 동등하게 적용되었다.

칼빈은 교회가 권징을 행함에 있어 ‘온유한 심령’(갈 6:1)을 결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한다.¹⁵⁰⁾ 오히려 바울이 지시한대로 그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야 한다.(고후 2:8) 또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교회에서 출교를 행함에 있어서도 출교 당하는 사람을 영원한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다 즉 출교는 교정수단으로 행하는 것이다.¹⁵¹⁾ 「출교와 저주」는 다르다. 저주는 죄의 용서를 거부하고 사람을 영원한 멸망에 정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출교는 단지 그의 도덕적 행위를 처벌하며 징계하는 것이다. 출교도 벌을 주는 것이지만 장차 정죄를 받으리란 것을 미리 경고함으로서 사람을 불러 돌이켜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149)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 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살후 3:14).

150)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강요 IV』, 8-13.

151) 위의 책, 10.

것이다.¹⁵²⁾

칼빈은 권징에 의해서 완전한 교회의 정화를 기대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최대한 단일성을 유지하도록 권징을 사용할 것을 말한 것이다. 따라서 칼빈은 권징을 통해서 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기대하는 것이다.¹⁵³⁾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권징의 목적에 대하여 기술하기를, 「교회의 권징은 범죄하는 형제들을 바로잡아 돌이키게 하며, 다른 형제들의 범죄를 저지하며, 덩어리 전체를 해칠 누룩을 제거하며,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의 고백을 변호하며, 교회에 임할지 모를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¹⁵⁴⁾고 하였다. 권징은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절대 필요하다. 그러나 권징 수행의 조건들¹⁵⁵⁾을 고려하여 바르게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B. 교회의 표지에 대한 몰트만의 입장

사도신경은 「하나이며, 보편적 교회」를 고백한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결정되었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진정한 교회는 이러한 세가지 혹은 네가지 속성을 그 특징으로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것들은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들을 의미하는가? 그것들은 교회의 진리

152) 위의 책.

153) 위의 책, 13.

154)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김혜성, 남정숙 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123.

155) 김영규, 『조직신학 편람 IV 교회론』 (경기: 안양신학대학원, 1965), 57.

를 짚 수 있는 표지인가? 만일 그것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면 이 네가지 속성들은 교회를 완전하게 특징지우고 있는가? 몰트만은 이러한 질문들이 성격을 달리하는 갖가지 교회들의 친교를 위해서, 이 세상 안에서의 교회의 가시적인 형태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말한다.¹⁵⁶⁾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루터는 일곱 가지를 말한다. 1)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설교 2)세례를 바르게 베푸 3)성찬의 올바른 형태 4)중보의 권리 5)교회의 목사들의 올바른 부르심과 성직수여 6)제 나라 말로된 기도와 찬송가 7)고난과 박해.¹⁵⁷⁾ 몰트만은 이 고전적인 표지들에 다른 특징을 첨가해도 되고 이 양자 사이의 기본적인 연결은 보여줄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교회 밖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말한다.

교회의 일치는 교회의 자유 안에서의 일치, 교회의 거룩함은 그것의 결핍 속에서의 거룩함, 교회의 사도성은 십자가의 표징을 지니고, 교회의 보편성은 억압당한 자들을 위한 그 열성적인 지지자로서의 후원과 연결되어 있다.¹⁵⁸⁾

종교 개혁 자들은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어지고 있는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로 보았다. 그러나 몰트만은 말씀과 성례전에 의하여 결속된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가 분리되고, 다투고, 부당하고 비인간적인 세상 속에서의 자신의 상황을 고려할 때 비로소 문제는 어렵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

교회 안에서 선포된 그리스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156) 위의 책, 359. “재인용.”

157) M, Luther, “Von den Konziliisund Kirchen,”(1539); 위의 책, 62. “재인용.”

158) J. Moltmann,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 363.

분이 아닌가? 또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성만찬의 그리스도는 또한 교회 밖에서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교회는 적대심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는 어떠한 형태이어야 하는가? 성령 안에서 성화 된 교회는 빈곤의 세상 속에서는 어떠한 형태를 취해야 하는가? 교회가 이 사회 안에서 처해 있는 상황을 가난과 고난과 자유와 그리고 참여의 특징을 교회에 부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¹⁵⁹⁾

몰트만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만일 교회가 자신의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삶의 정황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그의 주님의 십자가를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며 다만 자신에게만 종사하는 환상적인 교회로 변화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표지들을 말씀과 성례 전으로부터 이해하거나 내적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할 수만은 없고, 같은 정도로 외적 방향을 제시 해야 하며, 세상성을 고려하면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될 때 교회의 표지들은 오늘날 인간을 분산시키고, 분리시키고 있는 갈등 속에서 신앙 고백적인 표징들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회의 표지와 세상과의 관계를 말한다.¹⁶⁰⁾

1. 교회의 일치

교회의 일치는 「함께 모인 회중 안에서」 경험된다고 몰트만은 말한다.¹⁶¹⁾ 이 모인 회중의 일치는 「자유 속에서의 일치」이며, 일치 속에서의 자유와 다양성이다. 모든 사람은 그의 타고난 재주나 임무들, 그의 약함과 결함의 상태대로 받아들여 져야한다. 회중을 모으는 이는 그리스도이고 회

159) 위의 책, 364.

160) 위의 책.

161) Otto. Weber, 『회중 중심의 교회론』, 611.

중에서 생명을 주는 것은 새 창조의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자유에 봉사하는 어떠한 것도 회중 안에서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다양성과 자유 속에서의 일치이다. 이 일치와 다양성은 성령 안에서만 하나로 결합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개방된 친교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 회중은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이다. 다른 공동체들의 고통과 증언을 자신의 고통과 증언으로 보지 않는 공동체는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속에서 고통 당하시고 활동하시는 한 분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공동체의 제한을 넘어선 연대성을 가져야 하며 이것은 박해의 시기에도 증명되어야 한다.¹⁶²⁾ 또한 교회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메시아적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일치는 교회의 표지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임무이기 때문이다(요 17:21). 몰트만은 그 근거를 그리스도의 일치에서 찾는다. 그리스도의 일치는 그의 제자들과 믿는 자들의 친교와 일치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에 기초를 둔 억압당하고 굴욕 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과의 친교이며 일치이다.¹⁶³⁾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억압당하는 자들과 친교 해야 한다. 몰트만은 만일 교회가 억압당하는 자를 위해서 정의를 성취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사회적 갈등 속에서 평화를 성취하지 못한다면 그 일치는 더 이상 구원의 때의 속성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2. 보편적 교회

몰트만은 교회의 보편성이 교회의 지체인 것이 아니며 교회는 그리스도

162) J. Moltmann,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 336.

163) 위의 책, 367-68.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보편적이라고 규정한다.¹⁶⁴⁾ 보편적이라는 말이 「참된 교회」, 유일하고 정당한 교회의 표지로서 사용되어졌던 것은 1세기에 이단자와 종파 분리론자와 논쟁에서 사용되었다.¹⁶⁵⁾ 그래서 이 용어는 그것의 특성을 포함하는데, 그것은 진리의 충만함. 그리스도안에서의 그것의 일치와 거룩함 그리고 그것의 사도적 정당성이다.¹⁶⁶⁾ 나아가 교회의 보편성이란 교회의 확장적인 일치를 의미하는 그것은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러하다고 몰트만은 말한다.

보편성이라는 말의 공간적이고 내적인 의미를 함께 생각한다면 자신의 내적 전체성을 지닌 교회는 세상 전체와 연결된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교회의 정의로부터 나오는 결론(結論)이다. 교회가 완전히 그리스도에 연결되었다면 교회는 전체 세상에 연결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세상의 화해를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졌고 세상을 해방시키고 일치시키기 위하여 하늘과 땅에서 모든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 교회는 그 자체에 의해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전체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러하다.¹⁶⁷⁾

「보편적 교회」란 말은 교회의 운동, 선교, 그리고 희망을 묘사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보편적」이라는 말은 단연코 교회의 종말론적 규정이다.¹⁶⁸⁾ 역사 안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요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이다. 또한 교회는 선교에 있어서 보편적이다. 교회는 「이 세상 끝까지」(마 28:20) 교회의 세계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에의 참여를 실현하게 된다.¹⁶⁹⁾

164) 위의 책, 371.

165) 위의 책, 370.

166) 위의 책.

167) 위의 책, 371.

168) 위의 책, 372.

우리는 교회의 종말론적 규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몰트만은 「전체」와 관련된다는 의미에서 교회는 이방인들과 세상의 국가들에 대한 선교를 위해서 결단을 하는 순간부터 「보편적」이라고 불려져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교회가 보편적 교회로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교회는 한사람 혹은 한 단체와 다른 것들 사이에 있는 갈등을 멀리하는 데로 기울어질 것이다. 한편 교회가 그의 보편성을 사도직에서 이해한다면,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누르기 위해서 서로간에 구축한 장벽들은 선교와 친교를 통해서 파괴되어질 것이라고 몰트만은 말한다. 전체가 분열상태에 처해있을 때 교회가 우선적으로 잃은자와 거부된자 그리고 억압당하는 자들의 이익을 회복하고 추구하는 한에 있어서 교회는 전체에 연결되어 있고 또한 보편적이다.¹⁷⁰⁾

3. 가난속의 거룩함

몰트만은 교회의 거룩함은 교회의 가난함 속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천함과 무력함과 가난과 고난에 참여하는 곳에서 거룩하게 된다고 말한다.¹⁷¹⁾ 그는 덧붙이기를,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고, 제자들은 부에 관한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가난해 졌으며, 사도는 세상을 복음으로써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교회도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바치며, 그의 메시아적 세계선교에 투자할 때 이러한 의미에서만 비로소 가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회가 가

169) 위의 책, 371-72.

170) 위의 책, 375.

171) 위의 책, 379.

난하게 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한다. 그리고 그 가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가난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난한자들의 친교에로 이끌지 않으면 덕이 아니기에 가난한 교회는 가난한자들의 교회로서-다시 말하면 가난한자들이 거기서 자유를 얻고 그 나라의 담지자가 되는, 그런 공동체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¹⁷²⁾

4. 사도적 교회

몰트만은 교회의 사도성은 교회의 다른 표지들-일치, 보편성, 거룩성-과 구분한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교회의 표지이지만 사도성은 그 나라의 완성 때에 끝나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도래했을 때에는 사도적 선교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이다.¹⁷³⁾ 그러나 역사적 교회에 있어서는 여전히 사도성이 교회의 표지로 남는다.

교회가 사도적인 것은 교회가 사도들의 증언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인 동시에 교회가 사도적 선포를 수행하는데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사도성은 교회의 근거인 동시에 교회의 임무이다.¹⁷⁴⁾

몰트만은 사도직이 담당해야 할 대상을 교회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그는 「사도직이 복음의 선교이며 자유에로의 부름이며 메시아적 친교에로의 부름이라면, 세상에서의 사도직은 절대로 의심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¹⁷⁵⁾ 사도적 선교는 부자유와 폐쇄적인 권력과 법의 저항에 직면하며, 시련과 대립과 고통으로 이끈다. 이것은 사도직을 담당하는 교회가 피할

172) 위의 책.

173) 위의 책, 380-81.

174) 위의 책, 381.

175) 위의 책, 384.

수 없는 현실이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뒤따름에 의해 규정되는 고난과 희생이다. 그러므로 몰트만은 사도직을 증명하기 위해 사도바울이 자신의 박해와 고난과 상처와 흉터를 보여준 것처럼 사도직을 근본적으로 '능동적인 고난'과 '고난받은 행동'으로 이해한다.¹⁷⁶⁾ 고난속에 있는 사도적 교회에 대하여 몰트만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교회는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사도직이 된다. 그때 교회는 고통하는 사람과의 친교안에서 부활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언하며 감금된 사람과의 친교안에서 그의 미래를 증언한다. 무신적이고 비인간적인 세상 속에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교회」는 자신의 진정한 사도적 교회임을 입증한다. 교회의 사도적 계승은 그리스도의 계승이다.¹⁷⁷⁾

C. 개혁주의 입장에서 신학적 평가

몰트만은 항상 그 시대적 상황에서 교회론을 전제한다. 그는 교회안에서 선포된 그리스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성만찬의 그리스도는 또한 교회 밖에서 박해를 받고있는 사람의 형태인데 교회가 과연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의문을 품는다.

몰트만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만일 교회가 자신의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삶의 정황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그의 주님의 십자가를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며 다만 자신에게만 종사하는 환상적인 교회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표지들을 말씀과 성례 전으로부터 이해하거나 내적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이해할 수만은 없고, 같은 정도로 외적 방향을 제시해야하며, 세상 성을 고려하면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176) 위의 책.

177) 위의 책.

렇게 될 때 교회의 표지들은 오늘날 인간을 분산시키고 분리시키고 있는 갈등 속에서 신앙 고백적인 표징들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회의 표지와 세상과의 관계를 말한다.¹⁷⁸⁾

몰트만에게 있어서 교회론은 교회와 국가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교회의 주권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국가에 종속하려는 국가의 모든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¹⁷⁹⁾ 이러한 교회론은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교회론이다.¹⁸⁰⁾ 몰트만의 교회론에서 우리는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구원자로 오해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결국 그의 이러한 기독교론에 근거한 교회론은 남미에서 해방신학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그는 교회가 역사에 있어 항상 정치적 차원을 갖고 있으며, 정치적 요소를 나타내고, 충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직은 정치적 결과를 갖는다고 하였다.¹⁸¹⁾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 사회적 세계속에 있는 제도로서 그리고 이 세계를 위해서 비판적이며 해방을 주는 과제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나아가 「기독교의 정치적 책임이 오늘날의 갈등 속에서 분명히 민중 속에서 민중과 같이, 그리고 민중의 해방을 위해서 구체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함으로 기독교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강조한다.

물론 교회가 필요할 때에 선지자로서 목소리를 내어야만 한다. 그렇다고

178) 위의 책.

179) Wilhelm. Niesel, *Bekennnisschnften und Kirchenordnungen nach Gottes Wort reformierten Kirche*, (Switzerland: Zurich, 1938), 335: 「그가 성서에서 우리에게 증언 된대로 예수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야하고, 삶과 죽음에 있어서 우리가 신뢰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교회가 교회의 선교의 구원으로서 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그리고 이 말씀과 나란히 해서 또한 다른 사건들, 권세들, 형태들, 진리들을 하나님이 계시로서 인식할 수 있고 또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룩한 가르침을 우리는 거부한다.」

180) J. Moltmann,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 17.

181) 위의 책, 26.

교회가 민중의 해방을 위해서 일하는 정당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트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단지 정치적인 제도로 전락시키고 있다.

칼빈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 다분히 영적인 의미의 기독교론에 근거한 교회론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며, 또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모으고 그 교회를 통치하는 주권자로서 교회의 머리되심을 말하고 있다. 칼빈은 교회와 국가의 권세를 구분한다. 교회와 국가는 서로 다른 형식의 권세이다. 그리스도의 주권적 다스리심은 우주적이지만 국가적이고 구조적인 모든 문제에서 궁극적인 해결을 하시기를 원치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오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정치적인 해방자로 오심이 아니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제사장직 직분을 수행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 교회 역사상 여러 시대에 걸쳐 줄곧 논의되어 온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교회의 통일성이다. 교회의 통일성에 관한 정의 및 그 논의의 강도는 매 시대마다 변화되어 왔다. 때로는 교회의 통일성은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주제이기도 했다.

몰트만은 교회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메시아적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하나됨은 교회의 표지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임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몰트만은 그 근거를 그리스도의 하나됨에서 찾는다.

그리스도의 하나됨은 그의 제자들과 믿는 자들의 교제와의 하나됨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에 기초를 둔 억압당하고 굴욕 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과의 친교이며 일치라고 말한다.¹⁸²⁾

그러나 교회의 하나됨은 외적인 성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내적이고

182) 위의 책, 371-72.

영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의 하나됨으로서 신자들이 몸의 지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 몸은 하나의 머리이며 교회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며, 한 영 곧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활력을 부여받는다. 이것은 교회의 신체의 일치이며 성령과 신앙에 의한 하나됨이다. 이 같은 내적인 하나됨은 상대적인 의미에서 신자들의 신앙고백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고 같은 성례에 참여하는 데에서 그 외적인 표현을 찾으며 또한 획득된다.¹⁸³⁾

그리스도에 의한 진정한 하나됨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교통에서, 즉 예배의식의 교통 이상의 것을 포함하는 ‘코이소니아’에서 가시화되고 구체화되며 역사적인 것이 된다. 몰트만이 말하는 대로 세상적으로 억눌리고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와의 하나됨이 결코 교회의 하나됨일 수 없다.

몰트만은 교회의 선포, 세례, 주의 만찬, 예배, 메시아적 삶의 양식 등이 성례이며 그것은 미래의 새로운 계시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본다. 이 마지막 날의 신비스런 계시와 하나님 나라의 현재는 성령의 종말론적인 은사 안에서 찾아지기 때문에 성령은 계시하며 믿음을 창조하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이 된다.¹⁸⁴⁾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능력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분이시고 믿는 자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화롭게 하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힘이다. 따라서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곧, 신비이며, 그것은 성례전 이라고 불려야 한다고 몰트만은 말한다.¹⁸⁵⁾ 몰트만은 성례전이 말씀선포, 세례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칼 바르트의 성례에 대한 견해를 비판한다.¹⁸⁶⁾

183) 박형룡, “교회론,” 『교의 신학』 (서울: 한국기독교 교육연구원, 1977), 17.

184) J. Moltmann,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 225.

185) 위의 책, 228.

그는 성례전의 어원적인 의미를 묵시하는 문학에서 찾고 있다. *μυστηριον* 은 미래를 위한, 종말론적이며 궁극적인 의미에서 사용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비밀의 계시를 말한다.¹⁸⁷⁾ 이 개념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종말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비밀의 계시는 <성령의 종말론적인 은사>안에 놓여 있다. 선포, 친교, 메시아적인 상징적 의식들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일어난다.¹⁸⁸⁾ 결국 몰트만이 말하는 성례전은 종말론적이며, 종국적인 의미를 가짐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동시에 몰트만이 말한 성례전은 현실적이며, 실존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칼빈은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 제시한 모든 표시들을 성례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도 성례가 있었다. 생명나무나 무지개가 성례였다. 모든 성례의 양식은 예수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¹⁸⁹⁾ 칼빈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도구로서 성례전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칼빈에게 있어서 성례전은 구원에 있어서 언약의 표시이다. 성도들은 성례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을 확증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을 말한다. 칼빈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가입되는 입문의 표징을 세례라고 말한다.¹⁹⁰⁾ 세례는 하나

186) 위의 책, 224.

187) 위의 책, 225-27.

188) 위의 책, 51. 몰트만은 성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령의 계시하시고 완성하시는 활동은 그리스도 자신의 역사 안에서 성령의 활동과 관련하여 하나님에 관한 삼위일체적인 이해 안에서 보아야 한다. 성령의 사업은 그리스도의 사업에 대한 첨가는 결코 아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성령을 통해서 처형되었고, 부활하였다. 종말론적인 그리스도론이 그리스도론적인 종말론에 인도하듯이, 성령론적인 그리스도론은 기독교적인 성령론에 인도한다. 차이 안에서의 통일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역사 안에서 놓여 있다.”

189)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강요 IV』, 20

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데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성찬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생명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양식을 주심으로 지혜 있는 가장의 책임을 다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양식은 그리스도이다.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영혼은 그리스도에게서 양식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을 통해, 「그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의 피는 참된 음료이며 그것을 먹는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¹⁹¹⁾.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몰트만의 성례는 종말론적인 반면 칼빈의 성례전에 대한 입장은 구원론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몰트만이 말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정치적이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해방을 위해 일해야 하며, 종말론적으로 메시아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교회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들은 결코 정치적인 일들이 아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구원의 사역을 계획하시고, 개개인에게 적용하셔서 세상 속에서 죄인을 부르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다. 성령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에게 개인적인 구원을 맛보게 하시는 능력이시다. 몰트만은 구원론적인 성령의 사역을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교회의 역할을 정치적인 것을 오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역할은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시행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교회의 의무에는 성도가 성화의 생활을

190) Ronald S. Wallace,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박성민 역, 『칼빈의 사회개혁 사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175-83.

191)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강요 IV』, 4.

해 나가도록 가르치고 지도하고 도와야 한다. 칼빈은 「교회에 질서가 정연해야 하므로 규율이 더욱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훈이 생명인 것 같이 권징은 그 근육이며 이 근육에 의해서 몸의 지체들이 서로 결합되고 각각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¹⁹²⁾고 말한다. 칼빈은 권징의 목적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추악하고 부끄러운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빼앗으려는 것이다. 둘째는 선량한 사람이 악한 사람들과 교제함으로써 말미암아 타락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셋째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추악함에 대한 부끄러움에 놀라 스스로 회개하도록 하고자 함이다.¹⁹³⁾

교회는 교리의 혼란과 회원들의 건덕 상의 추문이 있을 때에만 말씀의 순결함과 성도들의 성화의 생활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권징을 집행해야 한다고 칼빈은 말한다.¹⁹⁴⁾

이에 반해 몰트만에게 있어서 교회의 거룩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신론자를 부르심으로써, 죄인을 의롭게 하심으로써, 버려진 자를 받아들이심으로써 그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한다. 교회는 죄의 고백과 함께 의인 신앙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 안에 교회의 성화가 있고, 따라서 교회의 거룩함이 있다고 말한다.¹⁹⁵⁾

몰트만은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 계속해서 말하기를 교회는 자신을 하나님이 교회 위에서 활동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거룩하다고 입증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이다. 구속을 맛 본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살게 된다. 그들은 종말 시의 성령으로부터 살고, 고

192) 위의 책, 1.

193)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살후 3:14).

194) 신복윤, “칼빈의 교회관,” 『신학 정론』 제6권 1호, 39.

195) J. Moltmann,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 376.

통받고, 활동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창조의 여명 안에서 거룩하다.¹⁹⁶⁾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몰트만에게 있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 이미 성화된 공동체이다. 또한 미래에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성화된 공동체이다. 몰트만에게 있어서는 교회의 불완전한 요소들을 제거해 버렸다. 따라서 그는 교회의 밖으로의 역할에 대해서는 강조하지만 자체의 성화 노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것은 크게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이후에도 여전히 사탄의 권세와 전투 중에 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성결함을 지켜 나가지만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는 없다. 칼빈은 교회 공동체가 진리 수호에 있어서나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거룩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권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몰트만은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희망의 신학’을 제기 하면서 교회의 불완전성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고,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를 이룬 공동체로 해석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칼빈의 주장대로 교회는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이지만 조직체로서의 유형 교회에는 거짓고백을 하는 무리도 있으며,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여전히 함께 있으므로 교회는 정당한 권징을 시행하여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 나가야하는 불완전한 공동체인 것이다.

오늘날 개혁 교회에서도 권징이 사라진지 오래 되었다. 그만큼 교회가 순결해졌기 때문이 아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합리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권징을 피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교회의 세속화를 더욱더 부채질하게 만들었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만들었다.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교회는 마땅히 성경으로 돌아가 교회의 순결을 보존하고, 죄를

196) 위의 책, 377.

지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권징을 회복해야만 한다. 사회는 점점 도덕적으로 타락해가고 있는데 만약에 교회가 권징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미 실추된 교회의 권위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세속화는 더욱더 가속화 될 것이다.

V.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

A. 교회의 사명에 대한 칼빈의 견해

칼빈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중의 통치 하에 있다고 말한다. 즉 영혼에 관한 영적 통치와 시민생활에서의 정의와 시민생활에서의 정의와 외적인 도덕성만을 확립하는 국가 통치가 있다는 것이다.¹⁹⁷⁾

영적 통치는 지상에 있는 우리안에 이미 하늘나라가 시작하게 만들며, 이 죽을 덧없는 생명속에서 영원 불멸의 복락을 어느 정도 예상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국가 통치에 지정된 목적은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사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외적인 예배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지위를 수호하고, 우리를 사회생활에 적응시키며, 우리의 행위를 사회 정의와 일치하도록 인도하며 우리가 서로 화해하게 하며, 평화와 평온을 증진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칼빈은 말한다.¹⁹⁸⁾ 따라서 칼빈은 국가통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집권자들의 지위는 하나님의 유형과 권위를 받았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행동한다고 주장한다.¹⁹⁹⁾

그는 성경적 증거로 바울이 말한 “권세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며(롬 13:2), 하나님께서 오지 않는 권세는 없다고 한다(롬 13:1).

그러므로 칼빈은 정권은 하나님의 소명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합당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활에서 어느 소명보다는 신성하고 훨씬 더

197)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강요 IV』, 1.

198) 위의 책, 2.

199) 위의 책, 4.

영예롭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²⁰⁰⁾

따라서 칼빈은 그리스도인과 집권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상호협조 관계 속에서 유대를 강화해야 할 것을 말한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집권자들을 부인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되고 집권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열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와 선과 후의와 공의를 나타내도록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한다.²⁰¹⁾

칼빈은 집권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 지배하에 있는 국민이 해야 할 첫째 의무는 그들의 지위를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집권자들의 지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한으로서 주신 것으로 인정해야하며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와 대표자로서 존경해야 할 것이다.²⁰²⁾ 그는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것을 여러군데의 성경적 증거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롬 13:1-2; 딤후 3:1; 벧전 2:13-14). 심지어 그는 통치자가 불의한 자일지라도 복종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집권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권위를 부여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통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애의 진정한 표본이며, 불의하고 무능한 지배자들은 국민의 사악을 벌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다. 지배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합법적인 권력에 주신 거룩한 위협을 부여 받았다고 그는 말한다.²⁰³⁾

그러면서도 그는 집권자들의 권위에 복종하는데 한가지 예외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왕에 대한 복종이 곧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주께서는 왕들의 왕이시며, 누구보다도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만일 그들의 명령이 하나님께 반대되

200) 위의 책.

201) 위의 책, 6.

202) 위의 책, 22.

203) 위의 책, 25.

는 것이 있다면 그 명령은 따르지 말 것을 요구한다.²⁰⁴⁾ 칼빈은 교회의 본래적 기능이 정부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때에는 정부에 대하여 항거하였다. 그리고 후기에 그는 통치자의 불의에 대해서 합법적인 통치자를 통해서 저항 할 수 있다는 입헌적 저항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했다.

1. 사회에 대하여

다른 르네상스 인문의 자들과 마찬가지로 칼빈은 자신의 시대가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위기에 사로 잡혀있으며,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매우 치열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시대의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우주의 입법자요 왕」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그의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그의 통치아래 살도록 전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셨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종교개혁은 또 하나의 세속적 영역의 개혁을 의미 했다.

칼빈은 가끔 세상의 무질서를 비난 했을뿐 아니라 질서의 회복을 하나님의 통치와 동일시했다. 칼빈은 비록 세상의 지혜를 불신한다고 자주 고백하긴 했지만, 기독교인의 어리석음을 결코 달가워 하지 않았다.

그의 소명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들을 일차적으로 우리들의 일에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동도 지나칠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칼빈은 중용의 입지를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그의 소명론은 노동의 효율성에 기여했다. 특별히 소명론은 노동의 분업화를 촉진시켰다. 또 노동에 대한 칼빈의 존중은 검약에 대한 권면을 수반하고 있다. 그는 가끔 되풀이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검약과 절제를 권장하

204) 위의 책, 32.

시고 풍부함 속에서 무절제와 사치하는 것을 금하셨다.」

2. 정치에 대하여

영국의 청교도,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도, 프랑스의 위그노, 네델란드의 베저, 그리고 미국의 필그림파더, 이들 모두는 자기들의 나라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는데, 이들 모두가 칼빈의 정신적 후예들인 칼빈주의자들이었다. 따라서 칼빈이 근대민주주의의 주창자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²⁰⁵⁾

칼빈은 제네바에서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법치적 신정정치’를 실현시킴으로써 서구 사회에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하였다. 그는 특히 그의 기독교 사상을 체계화한 기독교 강요를 통해 자유, 평등, 인권의 존중, 법에 의한 지배와 같은 근대적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뒷받침 할만한 정치신학을 전개하였다.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정치 신학의 민주적 요소들은 두 왕국 사상에 입각한 이중의 정부론 및 자연법 사상을 포함하는 시민정부론에 잘 나타나있다. 그는 고전적인 서구 민주주의 정치의 혼합 체제를 이미 제창하였고, 독재와 악을 저지르는 통치자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근대자유민주주의의 성립 기초가 되는 주권재인의 사상도 제시한 셈이 됐다.²⁰⁶⁾

B. 교회의 사명에 대한 몰트만의 견해

205) 이양호, 『칼빈의 생애와 사상』, 408.

206) 노재성, 『칼빈사상과 근대자유주의 발전과제의 관계』 (서울: 장로회신학대원, 1990), 219-20.

몰트만은 교회에 대해서 「모든 시대에 교회의 위임과 상황과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하며, 하나님과 사람과 미래앞에서 각각 자신에게 맡겨진 위임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해 감으로써 보다 믿을만한 형태로의 혁신을 위한 출발점을 제공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하였다」²⁰⁷⁾

몰트만은 현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하는 교회,’ ‘에큐메니칼교회,’ ‘정치적 교회’라고 말한다. 그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한다.

1.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의 기초요 힘과 희망이다.²⁰⁸⁾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말하며 그 성경적 근거로는 고후 “제가 모든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에 대한 주권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교회를 지배하기 위하여 주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사귀기 위하여 주권을 갖는다. 그러나 이것은 지속적인 개혁적 전통위에 새롭게 탄생하게 하는 영의 역사에 의해 그리스도의 친교로 인도되고 메시아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령과 미래의 빛(희망)의 능력을 통한 교회의 내적갱신 가운데 이러한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²⁰⁹⁾

207) J. Moltmann,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 13-15.

208) 위의 책, 16.

209) 김영환, 『바르트에서 몰트만까지』, 373.

a. 선교(宣敎)하는 교회(敎會)

몰트만은 교회의 본질을 선교에서 이해 하려고 한다. 그 까닭은 교회가 자신을 더욱더 세계의 지평에서 이해해야하며 교회의 위탁을 세계사의 틀 안에서 서술해야만 하는데 이것은 바로 宣敎적인 서술이기 때문이다.²¹⁰⁾

교회가 교회다운점은 선교에 있게되며, 교회로부터 선교가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로부터 교회가 이해되어야한다.²¹¹⁾ 여기서 몰트만은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도입한다.

세계의 지평속에 있는 선교의 교회를 神學的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의 지평에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 나타나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福音)의 설교(說敎)는 예수의 사명, 성령의 사명, 그리고 교회의 사명의 첫째되고 가장 중요(重要)한 요소이지만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선교는 경제적 궁핍에서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음”에 이르기 까지 오고있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인간의 노예 상태로 부터의 인간의 해방에 봉사하는 모든활동(活動)을 포함한다. 중요한 것은 교회 자체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교회 자체의 영광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아들을 통한 아버지의 영광 이 교회의 목적(目的)이다.²¹²⁾

b. 에큐메디칼교회

에큐메디칼 지평에서 기독교는 그 지역적 성격을 잃는다. 교회가 세계의 다른 교회들에서 항상 자신을 다시 인식하고, 스스로를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가지로서 이해할 때에는 언제나 지역적인 한계들이 깨진다. 에큐메디칼운동은 그리스도 교회의 보이는 통일을 갖는다. 그것은 자신들이 속해있는 사회들의 중산 계급적 그리고 정치적 종교들과의 끈으로부터 교회

210) J. Moltmann,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 19.

211) 위의 책, 83.

212) 위의 책, 24.

의 해방에 봉사한다. 동시에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갱신하는 것에 봉사한다.

몰트만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며 그 내적 근거로는 요한복음17:2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되어 우리안에 있게하사 …”라는 구절에서 찾고 있으며,²¹³⁾

외적으로는 「기독교가 그 자체에 있어서 연합적인 공동체를 통해서만 세계에 평화를 증거할수 있다」는 세계 상황을 언급한다.²¹⁴⁾

에큐메디칼 운동을 통해 선교적(宣敎的)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의 가시적 통일을 추구한다. 그것은 교회를 사회의 시민적(市民的), 정치적(政治的), 종교들의 구속에서 해방(解放) 한다.

c. 정치적(政治的) 교회(教會)

몰트만은 교회는 역사에 있어 항상 정치적 차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원하든 원치않든 교회는 정치적 요소를 나타내고, 충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직은 항상 정치적 결과(結果)를 갖는다고 한다.²¹⁵⁾ 따라서 만일 교회의 모든 활동들이 메시아적 사명의 봉사(奉事)가 된다면 정치적 영역은 제외될수 없다. 구원은 삶의 모든 차원에서 증거 된다. 이것은 ‘교회의 정치화’가 아니라 쾰빙글리가 말한대로 ‘그리스도의 표준과 규범’에 의해 교회가 정치를 기독교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세계 지평속에 있는교회’는 다만 6대주의 선교와 흩어지고 분열된 교회들의 에큐메디칼적 연합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세계지평 속에 있는 교회’는 세계의 증가하는 상호의존과 증대되는 긴장의 지평 그리

213) 위의 책, 26.

214) 위의 책, 23.

215) 위의 책, 26.

고 세계의 지배를 위한 투쟁, 착취, 억압에 항거하는 투쟁의 지평 속에 있는 교회적 실존이다.²¹⁶⁾

몰트만은 메츠(J.B.Metz)의 말을 인용해서 “교회는 이 사회적 세계속에 있는 제도로서 그리고 이 세계를 위해서 비판적이며 해방을 주는 과제를 갖고 있다”²¹⁷⁾라고 밝히며 교회는 정치적 요소를 갖고 잘못된 것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며, 해방을 위해서 일하는 한 제도라고 말한다. 나아가 그는 혁명의 신학(神學)이 어떻게 비판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기독교의 정치적 책임이 오늘의 갈등 속에서 분명히 민중 속에서 민중과 같이, 그리고 민중의 해방을 위해서 구체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다고 거듭 교회의 정치적인 면을 강조한다.²¹⁸⁾

결국 정치적 교회란 세계 지평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재배, 메시아적 사명, 교회적 실존에 대한 보다 가까운 정치적 일치를 찾는 것이며, 그것의 목적은 평화와의 의(義)속에 있는 새로운 창조인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에 있는 이 사람들의 교회의 이해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²¹⁹⁾

2. 하나님 나라의 교회

여기에서 몰트만은 하나님의 주권적 측면에서 교회의 모습을 조명한다. 이것을 위해서 몰트만은 그리스도를 통한 ‘희망’을 말한다. 그리스도는 희망(希望)을 열어 놓았다.

216) 위의 책, 27.

217) 위의 책.

218) 위의 책.

219) 위의 책, 29.

이 희망(希望)은 삶의 힘ियो, 삶은 관계들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으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기독교의 산 관계들에서 서술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교회의 미래는 타자를 위한 그리고 타자들과 같이하는 희망의 교회에서 비로소 서술된다.²²⁰⁾

이 희망에 대해서 몰트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문제, 세계 종교들의 문제, 그리고 세속질서의 문제등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다.

a. 교회와 이스라엘

몰트만은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관계성을 말한다. 그것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그의 지속적인 동반자로서, 그의 역사 안에 있는 동반자로서, 그리고 그의 희망(希望) 안에 있는 형제로서 인식하고 있다. 그는 「이스라엘이 교회와 더불어 끝까지 남을 ‘구원(救援)의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구원사적 신학의 명제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²²¹⁾

결국 몰트만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기독교의 선교(宣敎)를 통해 이스라엘의 메시아적 희망은 전세계에 미치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미래는 세계의 구원을 통해 성취(成就)될 것이라는 것이다(롬 11:15). 몰트만은 여기에서 기독교의 특별한 소명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세계의 구속(救贖)을 맡은 이방인과 하나님의 사이의 화해의 봉사로서, 교회는 세계로에의 희망과 그의 뜻을 채우는 일이다. 몰트만은 이와같이 ‘교회는 이스라엘이 신앙을 갖도록 자극하며(롬 11:11, 14), 이스라엘은 교회가 희망을 갖도록 자극하는 관계’라고 말함으로써 이방선교, 즉 세계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의 미래가 성취된다고 보고 이방 선교의 절대성을 교회와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찾고자

220) 위의 책, 4.

221) 위의 책, 155.

한다.

b. 기독교와 세계종교들

몰트만은 새롭게 변화한 세계 상황에 주목한다.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는 세계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세계의 여러종교들, 여러 문화들과 만나게 되었다. 몰트만은 이 상황속에서 그리스도 절대주의가 아니라 교회 절대주의를 비판한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은 씨푸리안(Cyprian)과 오리겐(Orgenes)을 증인으로 내세운 1442년의 플로렌스 종교회의의 결정이 있는데, 몰트만은 이것을 비판하고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로 바꾸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스도는 전체 세계의 화해를 위해서 왔고 희생되었으므로 제외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만인에게 주는 구원 밖에는 교회도 없다.」라는 표현을 하여 만인구원론을 펼친다.²²²⁾

이어서 몰트만은 기독교는 다른세계 종교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질 것 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신앙을 일깨우고 세례를 베풀며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권아래있는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것이 선교의 목표라고 말한다. 이 선교는 지리학 적으로 전세계까지이며, 양적으로 교회의 성장을 위한 전략도 전개해야 하지만 이것 뿐만 아니라 역시 다른 목표를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신뢰, 감정, 사유, 그리고 행위라는 삶의 분위기의 질적 변화에 있는 것이라고 몰트만은 말한다.²²³⁾ 그리고 그 삶의 분위기의 질적변화란, 굶주림, 한계급에 의한 다른계급의 지배, 이념적 제국주의, 원자전쟁 그리고 환경파괴등 오늘날 세계사에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되는 삶의 분위기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222) 위의 책, 173.

223) 위의 책, 171.

c. 세계의 삶의 과정안에 있는 기독교

몰트만은 ‘세계질서(世界秩序) 속에서의 교회의 위치’를 묻는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본래는 그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고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²⁴⁾ 기독교인들은 전 피조물(全被造物)의 미래(未來)로서 이 왕국을 전망한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다른 사람들과 함께만 그 나라를 위해 준비할수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 희망은 또 하나의 다른 세계로 향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안에서 변화되는 세계로 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계과정의 목표에 관한 기독교적 개념들은 단순한 사회 윤리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위한 기독교의 포괄적 선교의 일부분이다. 그는 만약 이 세계 과정안에 있는 그의 선교와 이 세계 과정에 대한 그의 희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그는 세계과정을 세가지로 구분한다.

- a) 경제적 투쟁과 자연의 개발에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삶의 과정」. 여기서는 인간에 의한 착취로부터의 인간과 자연의 경제적 해방이 불가피하다.
- b) 권력을 위한 투쟁과 권력의 규제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삶의 과정」. 여기서는 인간의 의한 억압으로부터의 인간의 정치적 해방이 필요하다.
- c) 교육, 인종 그리고 성의 특권을 위한 싸움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과정」. 여기서는 타인으로부터의 그의 소외로부터의 인간의 문화적 해방이 중요하다.²²⁵⁾

몰트만은 여기에서 현대사회 속에서 교회가 그 사회의 현재에 대한 책임적 존재로서 그 해방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²²⁶⁾

224) 위의 책.

225) 위의 책, 184.

나아가 이 악순환에서의 해방 뿐만 아니라 신앙의 현존도 꼭 같이 중요함을 말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위기들은 개선된 윤리의 도움 만으로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용기의 상실은 매우 만연되어 많은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이 일을 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위기에서 믿음은 「존재에서의 용기」, 「삶의 긍정」, 「땅에 대한 충성」을 의미한다고 그는 말한다.²²⁷⁾

기독교가 정치적 삶의 고정에서 인권의 보호를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치적 구조와 정부의 지배 형태 자체의 변경, 개조의 과정을 통해 전개되기 때문에, 기독교는 인간의 유대와 인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 국가의 형태를 진작시켜야 하며 이러한 것들을 해방하거나 억압하는 형태에 저항해야 한다.²²⁸⁾

몰트만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하나님의 형태의 지배로, 속죄된 자에 대한 속죄된 자의 지배요, 해방된 자에 대한 해방된자의 지배라고 언급하며, 출생, 종족, 종교, 건강 또는 민족성과 관계없는 모든 인간 존재에 있어서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²²⁹⁾

C. 교회(教會)의 사명(使命)에 대한 개혁(改革)

신학적 평가

226) 위의 책, 185.

227) J. Moltmann, *Perspektiven der Theologie*, 전경연 역, 『신학의 미래 (II)-십자 가에 핀 장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0), 123.

228) J. Moltmann,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 185.

229) 위의 책, 198.

교회에 대한 요구는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세상에 속해있으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는 교회는 시대의 요구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론에 대한 정의는 시대에 따라서 새롭게 시도되어 왔다. 한스 킹은 「교회론은 끊임없이 변하는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응답인 동시에 요구」라고 말한다.²³⁰⁾ 분명 교회가 변하는 세상에 굴욕적으로 타협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역사를 무시할 수도 방치할 수도 없기에 끊임없이 역사적 변화 앞에서 결단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개혁주의 교회론은 무조건 과거를 고수하려고 하는 보수주의적 태도와 현재교회가 있기까지의 과거를 무시하고 일시적인 현재의 새로운 변화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급진적 태도사이에서 오늘날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고민해야 한다.

물론 칼빈과 몰트만이 다른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국가, 혹은 통치자에 대한 생각이 달랐겠지만 칼빈은 영적인 통치와 국가의 통치를 구분해서 말하고, 국가 통치의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외적인 예배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지위를 수호하고, 우리를 사회생활에 적응시키며, 우리의 행위를 사회 정의와 일치하도록 인도하며 우리가 서로 화해하게하며, 평화와 평온을 증진하는데 있으므로, 국가의 통치는 절대로 필요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집권자들의 지위는 하나님의 위임과 권위를 받았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행동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에 대해서 교회의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후기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불의한 통치자에 대해서 저항 할 수있다고 하였지만 여기에 대해서 몰트만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몰트만은 「교회는 이 사회적 세계속에 있는 제도로서 그리고 이 세계를 위해서 비판적이며 해방을 주는 과제를 갖고 있다」고 말하여 교회는 정

230) 위의 책, 199.

치적 요소를 갖고있으며 잘못된 것을 향해서 소리를 내고 해방을 위해서 일하는 한 제도라고 말한다. 몰트만은 여기에서 교회를 하나의 정치적 집단으로 전락시키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물론 시대적 상황이 교회의 어떤 역할을 요구 했겠지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고 불의한 사회를 향해서 해방하는 일이 마치 교회의 본질인양, 교회의 본질(本質)을 변질시킨 우를 범하고 말았다. 그러나 개혁주의(改革主義) 교회는 구원 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영혼구원의 교회의 사명 중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믿는다.

몰트만은 교회의 본질을 「선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는 선교에 대해서 「오고 있는 하나님의 현재에서의 경제적 필요로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노예 상태로부터의 인간의 해방에 봉사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²³¹⁾」 말한다. 그는 선교를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노예 상태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개혁신학의 입장에서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는 것이 선교의 부수적인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영혼구원이 배제된 경제적 빈곤의 해결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사회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는 선교의 개념을 성경에서 이해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이런 선교의 개념으로 인해서 해방신학이 등장하고, 선교지에서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구원을 위한 노력 보다는 빵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선교의 한 형태가 등장하는 것도 보게 된다. 한마디로 그의 선교에 대한 정의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영혼구원의 문제와 함께 선교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굶주려 죽어져 가는 사람들에게 말씀과 함께 빵의 문제도 해결할수 있는 방안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다각

231) 위의 책, 22.

도로 모색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몰트만은 교회의 강조점은 세상이 교회에로 전환하는데 있지 아니하고 교회가 세상에로 전환하는데 있다. 교회가 세상에 의하여,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 의하여 복음화 되어야 한다. 교회의 갱신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에 있다. 몰트만의 교회론의 보편성의 개념은, 보편주의의 심각한 위협이외에도, 성경적 증거를 결여하고 있다.

몰트만이 언급하는 해방이란 무엇인가? 정치신학의 권유를 통하여 피지배계급(被支配階級)의 힘을 동원(動員)하고 이 힘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억눌린 자들의 해방을 시도하여야 한다고 몰트만은 주장한다. 그런즉 그의 정치신학은 곧 해방신학을 의미한다. 그는 투쟁에 의한 합법적인 해방을 성취하자는 것이다.²³²⁾

(1) 경제적 해방(經濟的解放)이다. 노동의 결과인 소득을 균일하게 분배함으로써 빈부의 차를 해소할 수 있다. 이를 가능케 하려면 이를 가능케할 수 있는 사회정의(社會的義)가 필요하다. 노동에 대한 특권을 자본이 가지는 한 노동력 빈곤은 해결될 수 없다. 자본가와 생산자가 경제적 힘을 공동으로 관리할 때에 원만한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2) 정치적해방(政治的解放) 정치적 독점으로 인하여 억압이 악순환될 때 그 사회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독재를 물리적으로 제거해야 하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야 한다.

(3) 문화적해방(文化的解放)이는 인종적 문화적 소외로부터 해방을 의미한다.

(4) 자연적해방(自然的解放), 절망적해방(絶望的解放), 이와 같이 몰트만 신학에서 얻은 결론은 कै제만의 역사 신학속으로 추락된 하늘의 신은 사

232) 한춘근, 『해방신학의 실상과 비판』 (인천: 도서출판 엘멘, 1989), 42-43.

신신학, 세속화 신학을 거쳐 해방신학에 도달할 때까지 한번도 신이 하늘로서 다시 승천해 본일이 없고 오직 인간역사 가운데 감금되어 일관되었고 처형되었고, 사망되고,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신학적 천재들은 신학적 괴변을 잘 한다. 발트나 볼트만이나 몰트만 같은 신학적 천재들은 자기들 괴변에 자신들이 침몰된 신학적 괴변의 자결자들이다.²³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개혁교회에서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이때에 세상의 등대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반드시 어떻게든 봉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몰트만과 같이 하나의 정치적 집단으로서 인류의 해방을 위하는 뜻은 절대아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는 이 세상이 더욱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이고, 아름답게 보존되도록 교회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233) 위의 책, 72.

VI. 결론(結論)

칼빈은 그의 교회론에 있어서 교부들과 어거스틴 그리고 루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교부 키푸리안은 그의 서신에서 교회안에 있어야 함의 중요성을 말했고, 터틀리안은 교회를 '동일한 종교적 고백과 신성한 훈련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결속된 하나의 몸인데, 이 몸은 하나의 조직된 힘으로서의 회합이며 회중'이라고 표현하였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부들의 교회관은 '불가견적' 또는 내면적인 통일에 중심을 두었다.

다음으로 칼빈은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았는데, 어거스틴은 교회의 신성은 교회성원에 의존치 않고 오직 교회의 머리와 성화의 기능에 직접 연결된다고 말하면서 가견적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 즉 예정된자와 예정되지 못한자들로 썩여 있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가견적 교회밖에도 예정된 자가 없지 않으며, 예정된자만이 불가견적인 신성한 교회의 성원이 된다고 하였다. 이 견해는 후에 칼빈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칼빈은 루터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루터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서 이기에 믿음을 생기게 하는 말씀의 선포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이며, 그리고 성례전을 통하여 그 믿음이 확인되므로 성례전 역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루터는 말한다.

칼빈은 로마 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서 교황의 권위를 앞세워 말씀에 의거하지 않는 교리적(敎理的) 무오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개혁(改革)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역사적인 면에서 볼 때 칼빈은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상황에 살았던

사람이다.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뚜렷치 않았고, 세속의 권력보다 교회의 권위가 우선시 되던시대(時代)였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패는 극에 달하여 세상에 고통을 안겨주었고, 세상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칼빈 당시의 상황은 신학적인 오류로 세상을 억압하는 상황에서 그의 교회에 대한 자신의 신학적(神學的) 입장을 정리했으므로 말씀에 근거한 바른 교회, 즉 유형교회 보다는 무형교회를 강조하게 되었고, 역사적이고 동적이라기 보다는 영적이고 정적인 면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래서 칼빈의 교회론의 강조점은 하나님 중심적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로서 강조되었다.

이에 반해 몰트만은 신학에 영향을 준 것은 2차 세계대전과 그 상황 가운데 발생했던 고백교회운동이다. 2차대전을 겪었던 몰트만은 전쟁으로 인해 고난받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있느냐?」, 「전능의 하나님이어! 어디계시나이까?」 하고 물었다. 그러나 하늘은 침묵할 뿐이었다. 「하나님 이어! 살아계실진대 어떻게 이러한 참극이 하나님 목전에서 자행 될 수 있나이까?」, 「하나님은 죽었구나! 사신신학에서 말하듯이 과연 하나님은 죽었구나! 옛날 하나님은 죽었다. 아브라함 시대 이삭, 야곱시대 그때 살아있던 하나님은 지금은 죽었다」²³⁴⁾는 신정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당시 세상의 일에 무관심했던 독일의 루터교회 속에 살고있던 몰트만은 고백교회운동과 바르멘선언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그로 하여금 ‘인간’에게 관심을 갖게 했고, 교회의 역동성에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그는 행동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한다. 교회는 외형적으로 그 시대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만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칼빈은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로서」 양육하고 교육하는 기능에 대해서 말하면서 무엇보다도 신실한 말씀의 선포와

234) 위의 책, 34. “재인용.”

가르침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그한 몸으로서의 「성도의 교통」을 증시한다.

반면에 몰트만은 교회를 「신앙(信仰)과 희망(希望) 사이의 긴장을 새롭게 창조(創造)하는 성령의 역사」로 이해한다.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친교는 성령의 체험에 근거하고 있고, 하나님나라 안에서 교회의 친교도 교회를 진리(眞理)와 자유로 인도하는 성령의 능력안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하여 교회에서의 성령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런데 그는 세례에 있어서는 칼빈의 견해와는 전혀 다르다.

칼빈은 세례는 봉헌의 징표로서, 세례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 영접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헤아림을 받게되며,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

몰트만에게 있어서 세례는 하나님 나라를 보증해주는 것으로,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는데 그 소명은 인간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해방(解放)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으로 눌린 자를 의미한다. 그 사실은 주의 만찬에 대한 그의 설명에서 곧 드러난다. 그는 주의 만찬에 참가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한 모든 사람들과 유대를 가지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평화와 의를 위한 공적이고, 공개적인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몰트만은 「출애굽 공동체로서의 교회」에서 교회의 메시아적 사명으로서 인간 해방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십자가의 교회에서 십자가에 달린 분과의 친교는 결국 가난한 자, 불구자, 밖으로 쫓겨난자, 갇힌자, 박해받는 자들과의 친교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나아가 그는 참된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교회이고, 또한

해방하는 교회」라고 말한다. 그리고 공동생활에서는 신적인 법이 실천되어야 하므로 어떠한 인종적, 계급적 구별을 용납할수 없고, 국가나 사회가 그런 구별을 필요로 한다고 해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몰트만은 여기에서 성경의 입각한 교회의 본질에 의해서 상황을 보는것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교회론을 적립하는,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의 교회론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교회론을 정립하고 말았기에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교회의 표지」에서 칼빈은 교회의 표지로서 신실한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의 시행을 강조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지하게 전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들려지는 곳 또 성례전이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그대로 집행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하는 곳이라고 말하였다.

칼빈은 이와같이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사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참된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식별하는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번 강조하였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수단인 하나로서 성례전을 언급하면서 성례전에서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준다고 말한다. 설교의 말씀의 중심이 예수그리스도이듯이 성례전의 본체역시 예수 그리스도 이시라고 설명하면서 신자들이 이 성례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받게 된다고 밝혔다. 교회의 의무에는 성화의 생활을 해 나가도록 회원들을 지도하고 도와야 할 일이있는데, 교회의 설교가 헛되지않고 성례가 신자들의 신앙을 충분히 강화할수 있기를 바란다면 교회는 오류에서 피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자아 반성과 함께 신자에 관한 권징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칼빈의 말씀에 대한 강조와 성례의 중요성, 그리고 성찬을 자주 시행할 것에 대하여 깊이 새겨야 한다. 개혁주의에 있어서 말씀의 중요성

은 인식 하지만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설교자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몰트만은 교회의 표지에 있어서 교회의 현실 참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 교회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끝난다면 단지 자신에게 환상적인 종교로 끝나고 말것이라고 하였다.

몰트만은 만일 교회가 자신의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삶의 정황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포기하는 것이 될것이며 다만 자신에게만 종사하는 환상적인 교회로 변하게 될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표지들을 말씀과 성례전으로부터 이해하거나 내적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이해할수만은 없고, 같은 정도로 외적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세상성을 고려하면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될 때 교회의 표지들은 오늘날 인간을 분산시키고 분리시키고 있는 갈등속에서 신앙고백적인 표징들이 될것이라고 주장하며, 교회의 표지와 세상과의 관계를 말한다.

몰트만은 교회의 일치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일치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일치는 그의 제자들과 믿는 자들의 친교와의 일치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에 기초를 둔 억압당하고 굴욕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과의 친교이며 일치」라고 주장한다.

몰트만은 교회의 거룩함은 교회의 가난함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천함과 무력함과 가난과 고난에 참여하는 곳에서 거룩하게 된다고 말한다. 몰트만은 교회의 표지와 세상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찾는 시도는 좋았지만 그는 작업에 있어서 교회의 본질적(本質的)인 요소를 놓치고 말았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윤리나 도덕에 머물고 말았다.

하지만 개혁주의 신학(改革主義神學)에서는 몰트만이 시도하여 실패한 것에 대해서 비판만 할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경적 원리에 충실한 밖으로의 교회에 대한 본질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 시대의 요청이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에 대해 칼빈은 좀 소홀히 다루었다. 우리는 지금그가 살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시대에 살기에, 오늘날 이 시대에 부응하는 교회들을 정립해야만 한다. 무턱대고 자유주의 자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 원리에 입각한 교회의 사명으로서, 정치에, 사회에, 환경적 문제에 어떻게 관리해야 할것인지에 대해서 개혁주의적인 입장을 정립해야만 한다.

몰트만은 교회에 대해서 「모든시대에 교회의 위임과 상황과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하며, 하나님과 사람과 미래 앞에서 각각 자신에게 맡겨진 위임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해 감으로써 보다 믿을 만한 형태로의 혁신을 위한 출발점을 제공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몰트만은 기독교는 다른 세계 종교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신앙을 일깨우고, 세례를 베풀며,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권아래있는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것이 선교(宣敎)의 목표라고 말한다. 이 선교는 지리학적으로 전 세계까지이며, 영적으로 교회성장을 위한 전략도 전개해야 하지만 이것 뿐만 아니라 역시 다른 목표를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신뢰, 감정, 사유, 그리고 행위라는 삶의 분위기의 집적 변화란, 굶주림, 한 계급에 의한 다른 계급의 지배, 이념적 제국주의, 원자전쟁 그리고 환경파괴등 오늘날 세계사에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되는 삶의 분위기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선교의 개념에 있어서 영혼에 대한 관심이 결여된 것에 대해서는

비판(批判)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진정한 선교는 굶주리고 억눌린 자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말씀과 함께 그들 생활(生活)의 질적변화(質的變化)를 위해서도 노력해야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의 개혁(改革) 교회에서 배울점이 있다고 본다.

이제까지 칼빈과 몰트만의 교회관에 대해서 살펴보고 개혁신학적(改革神學的) 입장에서 평가를 시도해 보았다. 칼빈이 교회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성경에 입각한 본질적 요소에 충실한 반면에, 몰트만은 교회의 본질을 성경적으로 풀려고 하기보다는 지나치게 시대상황에 교회를 끌어드려서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만을 강조한 나머지 교회의 본질을 흐리고 말았다.

반면에 칼빈의 교회관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의 중심점으로 좋은 위치를 주지만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는 측면에서는 좀 약하다는 느낌을 갖게한다. 오늘날 국제적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기아에 허덕이는 수 많은 사람들이 있을 뿐만아니라 인권을 유린당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등 여러측면에서 문제를 안고있는 오늘날 원리에 충실한 칼빈의 교회론 더하여 교회의 기능이 잘 조화를 이루어 하겠기에 여기에서는 개혁주의(改革主義) 입장에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한다.

첫째, 두 신학자가 다른시대적 배경하에서 다른 교회론이 나왔듯이 오늘날 우리시대에 맞는 교회론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교회론은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한다. 성경에는 사회를 향하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나타나 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금 교회론을 정리해야 한다. 이것은 몰트만처럼 주어진 환경에 교회의 역할을 물어서 교회론을 정립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밀라드 J.에릭슨은 그의 책, 「복음주의 조직신학」 교회론에서 교회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교회는 신자들과 비기독인들 모두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연민의 행위들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²³⁵⁾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²³⁶⁾

예수는 곤궁한자와 고난당하는 자의 문제들을 염려하셨고, 병든자를 치료하셨고, 심지어 때로는 죽은자들도 일으키셨다. 만약 교회가 그의 사역을 수행하려 한다면, 교회는 곤궁한 자와 고난당하는 자에 대한 어떤 형태의 사역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예수가 신자들에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명백하다(눅 10:25-37). 예수는 사람이 전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영생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누가 그의 이웃이냐고 물었던 율법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율법에 의하면 이웃사랑은 하나님사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위들과 같은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교회는 세상의 상하고 궁핍한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마태복음 25:31-46에, 참된 신자들이 공허한 고백들을 일삼는 사람들과 구별 될 수 있는 한가지 표지(標識)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또한 그를 본받는 사랑의 행위들임을 암시하고 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일은 스스로 그런 배려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신 10:17-19).

그는 계속해서 사회에 대한 관심이 서신서에도 강조되고 있다고 밝힌다. 야고보서는 특별히 실천적인 기독교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경건의 정의를 언급한다. 「하나님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이하는 이것이니라」(약 1:27).

235) Millard J. Erikson. *Christian Theology*, 신경수 역, 『복음주의 조직신학』, 250.

236) 위의 책, 250-51.

에릭슨은 행함에 대한 강조를 야고보서를 인용해서 계속 강조한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하라, 배부르게 하라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약 2:15-17). 요한 사도도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3:17-18).

에릭슨은 사회적 관심은 불의를 비난하는 일도 포함한다고 성경의 실례를 들어서 지적하였다.

아모스와 몇몇 다른 구약성경의 예언자들은 그 당시의 악과 부패에 맞서서 거리낌 없이 강하게 말하였다. 세례요한도 역시 이 일이 그의 자유를 아꼈고(눅 3:19-20), 결국은 그의 목숨까지도 앗아갔지만(막 6:17-29), 당시의 통치자인 헤롯의 죄를 비난하였다. 교회는 곤궁에 처하거나, 상하거나, 혹은 악한자를 볼 때마다, 관심을 보이고 행동을 취해야 한다. 채택되어야 할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는 상이한 선택의 길이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 교회는 단순히 상한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즉 문제의 결과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일할 것이다. 다른 경우에, 교회는 그 문제를 산출한 상황을 변경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교회가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때도 있을 것이다.

둘째, 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몰트만에게 있어서 세례는 하나님 나라를 보증해 주는 것으로,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는데 그 소명은 인간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주의 만찬에 참가하는 자들을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한 모든 사람들과 유대를 가지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평화와 의를 위한 공적이고, 공개적인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몰트만은 「출애굽 공동체로서의 교회」에서 교회의 메시아적 사명으로 인간 해방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십자가의 교회에서 십자가에 달린분과의 친교는 결국 가난한자, 불구자, 밖으로 쫓겨난자, 갇힌자, 박해받는자들과의 친교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몰트만은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영혼 구원보다도 인간 해방의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였다. 그는 교회를 하나의 국제인권단체로 생각하고 있는듯하다.

요컨대 몰트만은 교회에서 복음사역의 멩에를 벗기고 인권운동의 멩에를 씌운 것이다. 무모하게도 몰트만은 삼위일체로부터 수평적인 사회적 평등관계로 조작하고 이어서 교회도 수평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모든 세계시민을 수평적인 평등관계로 만드는 이른바 해방운동에 종사하도록 만들었다. 몰트만이 이러한 해방으로의 인내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여금 급기야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같은 극렬한 혁명전사의 옷을 입게 만들었다.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나 급집적인 사회관계를 추구한다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

칼빈은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신자들의 어머니로서」 양육하고 교육하는 기능에 대해서 말하면서 무엇보다도 신실한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을 강조하며 말씀의 선포에 있어서는 성령의 능력을 무엇보다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교회에서 권징이 신실히 행해져야 함에 대해서 말했다.

진정한 사회봉사는 제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아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봉사가 참된 봉사이기에 세상을 향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화되어야한다. 말씀의 선포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해서 성도들이 변화를 받고, 스스로 사회를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교인들의 양육을 위해서 많은 신앙훈련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런 기능들이 강화될 때 자연스럽게 교회는 말씀에 근거한 사회적 봉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권징을 엄격하게 시행함으로써 교인들이 죄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마음을 갖도록하고, 교회의 성결을 유지해야만 한다.

개혁 교회는 학교교육에 밀려나 교회 교육을 점점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강화해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한 교육을 통해서 신실한 일꾼들을 길러내고 이들로 하여금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개혁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라진지 오래된 유년주일학교의 수요일예배도 부활되어야 할뿐만아니라 주일 오전에만 참석하고 학교공부에 매어 달리는 중·고등학생들도 주일오후예배 뿐만 아니라 수요일예배까지 참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하고 주일밤은 산 기도를 하여야만 한다. 개혁(改革)교회는 말씀의 능력에 의한 변화를 기대한다.

셋째,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정립해야 한다.

칼빈이 처한 시대와 몰트만이 처한 시대적 상황이 달랐기에 칼빈은 그리스도인과 집권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상호 협조 관계속에서 유대를 강화해야 할 것을 말하지만 단 예외로 왕에 대한 복종이 곧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만일 그들의 명령이 하나님께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그 명령은 따르지 말 것을 요구하고, 교회의 본래적 기능이 통치자의 정부로 위협을 받을 때에 정부에 대하여 싸웠다. 반면에 몰트만은 불의한 정치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칼빈이 그리스도인의 현실참여, 혹은 문화적 사명에 대해서 조금미약한 반면에 몰트만은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회를 정치적 집단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참고문헌

- 김균진. 『헤겔신학과 현대신학』. 서울: 기독교 출판사, 1980.
- 김영규. 『조직신학 편람 IV교회론』. 안양: 안양신학대학원교제, 1965
- 김영한. 『바르트에서 몰트만까지』. 서울: 기독교 출판사, 1982.
- 노재성. 『칼빈사상과 근대자유주의 발전 과제에 관한 논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원, 1990.
- 박근원. 『칼빈신학 현대적이해』. 서울: 기독교서회, 1978.
- 박형룡. “교회론.” 『교회 신학』. 서울: 한국 기독교 교육 연구원, 1977.
- 신복윤. “칼빈의 교회관.” 『신학 정론』 제6권 1호. 수원: 합동신학출판, 1988.
- _____. 『칼빈의 교회론』. 서울: 신학 지남사, 1976.
- 임상훈. 『칼빈의 교회론 연구』. 서울: 서울신학대학원, 1988.
- 이양호. 『칼빈의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 신학 연구소, 1997.
- 이장식. 『기독교사상사 제2권』. 서울: 대학기독교서회, 1983.
-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84.
- 조영엽. 『교회론』.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7.
- 한춘근. 『해방신학의 실상과 비판』. 인천: 도서출판 엘맨, 1989.
- Avis, P. D. L. 이기문 역. 『종교개혁자들의 교회관』. 서울: 컨콜다아사, 1987.
- Campenhausen, Hans Von. *Lateinische Kirchenvater*. 김광식 역. 『라틴 교부연구』.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95.
- Calvin, J.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신복윤 외 3인 역. 『기독교 강요 IV』.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 Erikson, M. J. *Christian Theology*. 신경수 역. 『복음주의 조직신학』.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 Kelly, J. N. D. *Early Christian Doctrines*. 김광식 역. 『고대기독교교리사』. 서울: 한글, 1997.
- Kung, Hans. *Was Its Kirche*. 이홍근 역. 『교회란 무엇인가?』. 왜관: 분도출판사, 1987.
- Neve, J. L.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Vol I. History of Chritian Doctrin.e*. 서남동 역. 『기독교교리사』.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2.
- Niesel, Wilhelm. *The Gospel and The Churches*. 이종성, 김항만 역. 『비교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 Moltmann, J.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 박봉량 외 4인 역.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2
- _____. *Theologischer Hoffnung*. 전경연 역. 『희망의 신학』. 서울: 현대사상사, 1973.
- _____. *Perspektiven der Theologie*. 전경연 역. 『신학의 미래(II)-십자가에 핀 장미』. 서울 : 대한 기독교 서회, 1970.
- _____. *Politische Theologie*. 조성로 역. 『정치신학』. 서울 : 대한 기독교서회, 1974.
- Renwick, A. M., Harman, .A. M. *Story of The Church*. 오창윤 역. 『간추린교회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 Schaeffer, Francis A. *The God Who Is There*. 홍치모 역. 『기독교현대사상』. 서울: 성광문화사, 1995.
-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김혜성, 남정숙 역.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 Walker, G. S. M.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역. “칼빈과 교회” 『칼빈에 관한 신학논문』. 서울: 기독 문화사, 1996.
- Wallace, Ronald S.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박성민 역. 『칼빈의 사회개혁 사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 Weber, Otto.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서울: 이레서원, 2001.
- Calvin's Commentaries*. Various Translators. Vol. 45.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48.
- Williams, Colin W. *The Church, New Directions in Theology Today*, Vol. 4. Philadelphia: Westminster, 1969.
- Torrance, D. W. and T. F. Torrance. ed. *Calvin's Commentaries*. Vol. 12.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59–1972.
- Schaff, Phillip. *The Principle of Protestantism*. Philadelphia: United Church Press, 1964.
- Placher., William. *A History of Christian Theolog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3.
- Niesel, Wilhelm. *Bekennnisschnften und Kirchenordnungen nach Gottes Wort reformierten Kirche*. Zurich Press, 1938.